

민국 100년!

선열이 꿈꾼 나라, 우리가 만들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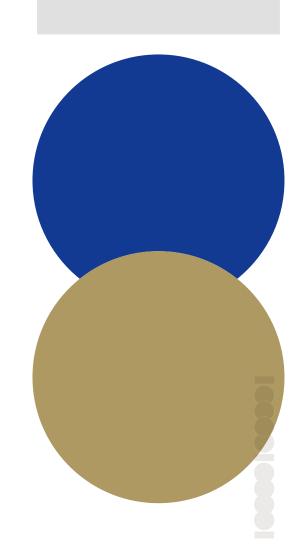
民國

충청권









100년 토론광장

5.31.(금) 14:00 영남권

6.05.(수) 14:00 호남·제주권

6.10.(월) 14:00 충청권

6.28.(금) 14:00 강원권

7.13.(토) 14:00 수도권

100년 토론광장은 국민이 직접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뜻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국민참여 행사입니다.







100년 토론 :

민국100년! 선열이꿈꾼나라,우리가만들세상

100년 토론광장은

국민이 직접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뜻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국민참여 행사입니다.





만드는 역사에 함께 해주세요

권역별 일정・장소

행사개요

참가규모 각권역별 200명

토론주제 1부: 우리가 계승해야할 100주년의 가치

2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치실현 방안

진행순서 조별 토론 ▶ 내용 공유 ▶ 우선순위 선정

신청방법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minkuk100.kr)

최종 참가자는 신청자 중 추첨으로 선발합니다.(개최일 일주일 전 개별통지) 최종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비와 한정판 기념품을 드립니다.











권 | 5월 31일(금) 14:00 | 경남도청 대회의실

강 원 권 6월 28일(금) 14:00 │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홀 수 도 권 │ 7월 13일(토) 14:00 │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호남・제주권 | 6월 5일(수) 14:00 |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

권 6월 10일(월) 14:00 대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행사 안내

개최 일시 및 장소

권 역	공동주최	일 시	장 소
충청권	대전광역시	6.10.(월)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호남 제주권	광주광역시	6.05.(수)오후 2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
영남권	경상남도	5.31.(금) 오후 2시	경남도청 대강당
강원권	강원도	6.28.(금) 오후 2시	춘천세종호텔사파이어홀
수도권	서울특별시교육청	7.13.(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세종홀

참가 자격 국민일반 권역별로 **200명** 예비인원 50명 추가 선발

개최 일시 및 장소 **온라인 접수** minkuk100.kr http://bit.ly/백년토론

참가자는 신청자 중 권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 무작위 추첨 개최 1주일 부터 개별공지

이벤트 페이지 100년 토론광장 이벤트 페이지 바로가기 » minkuk100.kr

목차

인사말	05	한완상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08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1장	10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역사 탐방
	11	1. 3·1운동 알아보기
	17	2. 임시정부 알아보기
2장	20	3·1운동과 임시정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
	21	1. 3·1운동
	27	2. 대한민국 임시정부
3장	32	우리 고장에서 일어난 3·1운동
	33	1. 3·1운동의 규모
	36	2. 충청지역 3·1운동
4장	46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가치
	47	1. 가치 발견을 위해 사용한 5가지 문건
	48	2. 3·1운동과 임시정부의 가치(예시)
참고 자료	59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67	쉽게 읽는 2·8독립선언서
	75	쉽게 읽는 대한독립선언서
	82	쉽게 읽는 대한여자독립선언서
	87	쉽게 읽는 조선혁명선언
	104	대한민국임시헌장

새로운 100년, 국민이 이끌어야 합니다



대통령직속 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한 완 상** 공동위원장

3·1운동에서 시작된 지난 100년의 우리 민족사를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100년 토론광장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들어 전국 곳곳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100주년을 기념하면 서 새삼 깨닫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공공적·공익적 항거였습니다. 동시에,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피압박 민족, 더 나아가 세계 모두의 공영^{共榮}을 지향했던 매우 감동스러운 변혁적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총칼로 진압한 일본의 헌병경찰 앞에서도 끝까지 비폭력 평화시위를 고수한, 매우 감격적인 민족 항거였습니다. 17세의 유관순은 옥중에서 죽음을 앞둔 순간에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 밖에 없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슬픔"

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살신성인의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은 다른 약소국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의 공공성과 감동성은 대한제국^{大韓帝國}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변혁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3·1운동의 공공성과 감동성, 변혁성은 우리의 매우 중요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단순한 만세운동으로만 기억된 것이 지난 100년 이었습니다. 우리의 뿌리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이 안타까운 현실은 여러분의 게으름이나 무관심 때문에 만들어 진 것만은 아닙니다. 3·1운동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는 것을 꺼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첫째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없애고 독립의지를 말살하려 했던 일본정부와 그에 기생한 친일파들입니다. 그들은 우수한 우리민족을 야만인처럼 대하면서, 3·1운동의 참된 가치가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가 물러난 뒤에는 마땅히 3·1운동 정신을 국가 재건의 주 춧돌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일잔재를 적기에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3·1운동 정신과 가치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친일잔존세력들은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3·1운동의 그 공공적 가치와 그에 따른 감동적 울림을 제약하려 했습니다. 이들이바로 그동안 참된 3·1운동 정신의 계승을 가로막은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의 공공성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의연히 촛불을 들고 비폭력 평화의 가치를 고수했던 촛불시민혁명이야말로 바로 3·1운동의 위대한 부활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정신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잘 깨닫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100년 토론광장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은 100년 전 선열들이 꿈꾸었던 나라를 오늘과 내일의 현실로 만들기 위한 역사적 소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100주년의 표어^(슬로건)로 결정한 말이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100년 전, 나라가 일본의 부당한 강점으로 국권을 박탈당했을 때 늘 앞장선 것은 전체 민족이었고 애국 겨레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보다 밝고 맑은 조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대전시민의 힘으로!



허 태 정 대전광역시장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자, 대전시 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계승할 가치를 찾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토론하는 '100년 토론광장'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해 민주, 인권,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민족적 투쟁이었습니다. 지역과 계층, 종교,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떨쳤던 항쟁이었습니다.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끝까지 비폭력 평화시위를 지켜냈던 민족적 항거였습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함성은 자유, 평등, 평화라는 인류보편의 대의를 밝혀 약소민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3.1독립운동의 함성을 가슴에 간직한 국민들은 자신이 독립운동의 주체이며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소중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독립을 이뤘고, 그 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임시정부의 뿌리, 그 위에서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운 것입니다.

지금이 있기까지 이 땅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수많은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애국선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며, 희생하신 선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친일과 매국이 무엇인지 후대에 알리고, 정의로운 결말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 전 선인들이 외친 민주주의, 비폭력 그리고 평화의 정신을 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열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후인들인 여러분이 꿈꾸신 아름답고 정의로운, 더 따뜻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대전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흐른 2019년 이곳 대전에서 열리는 열띤 토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힘찬 출발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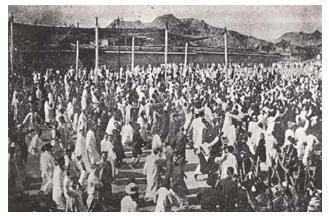
감사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역사 탐방

1. 3·1운동 알아보기

─ 3·1운동 개요 ─

정 의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이어져온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민족 최대 의 독립운동
대표인물	민족대표 33인(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배 경	고종황제의 급사로 인해 일제 강점기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함에 따라국제사회에 일제의 만행과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일어난 항일독립운동
결 과	서울을 비롯하여 7개 지역에서 시작된 3·1운동은 곧바로 국내외로 확산되었으나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일제의 폭력적 탄압에 따라 많은 희생자를 낸 채 마무리됨
의 미	근대 민족주의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중 국의 5·4운동, 인도, 아시아-중동 지역의 민족운동에도 자극을 줌



1 덕수궁 앞에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



2 부녀자들의 만세 행진

─ 3·1운동의 배경과 시작 ─

1918.01	Y	제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국제평화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14개조 평화원칙'			
		발표			
1918.11	+	독일의 항복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919.01	+	파리강화회의에서 우드로 윌슨 '민족자결주의' 주장			
		대한제국 제1대 고종황제 68세에 급사			
1919.02	+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에 의해 2·8독립선언 발표			
1919.03	\	민족대표 33인 독립선언서 발표와 3·1운동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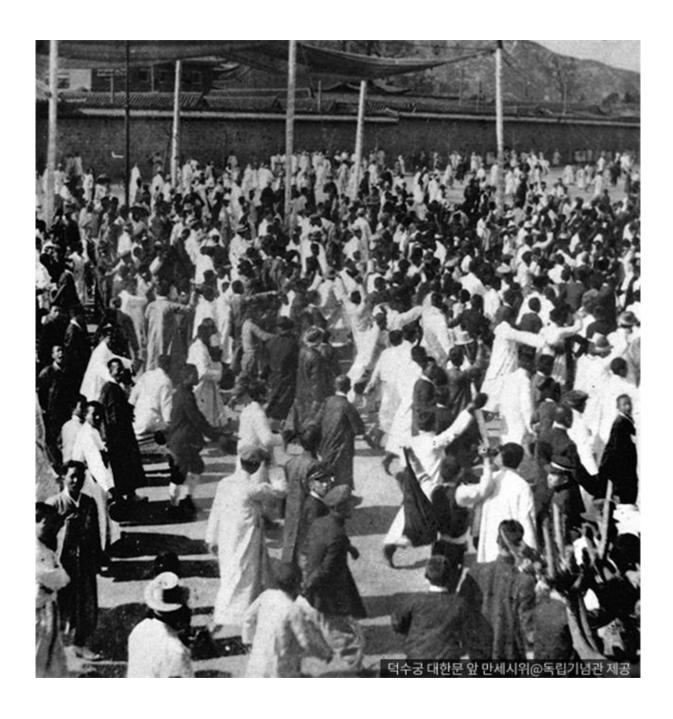
1919년 3월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신한청년당 대표단 앞줄 맨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여운홍과 김규식이고, 뒷줄 왼쪽 세번째가 조소앙이다.

─ 3·1운동의 정신 ─

민주주의	3·1운동은 민족마다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마땅히 독립 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저항운동
세계평화	3·1운동은 세계를 향해 한국의 독립 없이는 동양 평화도, 세계 평화는 없다고 주장
비폭력	3·1운동은 폭력을 배제하고 비폭력 평화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함

─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

혼연일체의 통합적 민 족운 동	•	3·1운동은 신분과 지역, 남녀노소의 차이를 넘어 온 민족이 대통합 하여 전개, 해외의 한인들도 동참하였고, 종교인과 근대적 신교육 을 받은 신진청년들이 주도적 역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	3·1운동 이후 국내외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 수립, 상해에서는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수립, 항일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
군사단체의 조직	•	3·1운동 이후,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대한독립단, 서로군정서 등 군사단체 조직
문화통치의 쟁취	•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문화통치를 쟁취
정치이념과 정치사상의 변화	•	3·1운동을 기점으로 정치이념은 왕조를 부활하려는 유교사상이 퇴조하고 공화주의가 대세
약소민족 독립운동의 일환	•	3·1운동은 중국 5·4운동, 인도,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 약소민족 독립운동의 하나임
우호적 세계 여론 조성	•	3·1운동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을 전환시키는데 기여
3·1운동과 광복	•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독립을 쟁취하는 데 정신적 유산으로 작용
국민통합의 정신적 기반	•	3·1운동은 국민통합, 남북통일의 정신적 기반이 될 것임



2. 임시정부 알아보기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개요 —

정 의 1919년 3월 1일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설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 간 1919.04.11. ~ 1945.08.15.

대표인물 안창호, 여운형, 김구, 김규식, 이승만, 이동휘, 이동녕 등

주요업무 내정, 군사,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조직적 독립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정 —

전 개 1919년 3·1운동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국내외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수립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국호 제정, 임시헌장 반포, 국무원 선임

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년 9월 상하이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와 통합

결 과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탄압으로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 대(對)일항전의 지휘기관으로 위상을 굳힘

의 의 국권상실 시기에도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중앙정부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독립운동의 대표기구로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됨

- 임시정부 수립에서 광복까지 -

1917 신규식, 신태호 등 상하이에서 대동단결선언 제창

1919.03 3·1운동 전개 및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수립

1919.04 상하이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한성임시정부 수립

1919.09 3개 임시정부 통합

1932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임시정부 이전

1940 치장에서 충징으로 임시정부 이전

1945.08 8.15광복



— 대한민국임시헌장 —

제 1 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 2 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 3 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 4 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제 5 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 6 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 7 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한다.

제 9 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제 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臨 時憲章)은 1919년 4월 11일 공포 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헌법으 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 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

─ 27년의 여정,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동의 역사 (1919.4 - 1945.8)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1935년) (출처, 독립기념관)

—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표 —

1919. 3. 1.	3·1독립선언
1919. 3.	중국 상하이에 독립임시사무소 설치
1919. 4.10~11.	중국 상하이에서 1회 임시의정원 회의 개최, 임시정부수립
1919. 5.10.	국가주권 승인 등의 공문서를 파리강화회의에 제출
1919. 7.10.	국무원령 제1호로 연통제 실시 공포
1919. 8.21.	임시정부 기관지로 독립신문 창간
1919. 9.11.	임시정부 공포, 통합 임시정부 수립
1920.1.	전 국민의 광복군 전투 대열 참가를 당부하는 군무부 포고 1호 발표
1925. 4. 7.	임시헌법 개정 공포(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
1927. 3. 5.	임시약헌 개헌 공포(국무위원 집단지도체제)
1931. 4.18.	삼균제도(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를 건국 원칙으로 발표
1932. 1. 8.	이봉창 의사 의거
1932. 4. 29.	윤봉길 의사 의거
1932. 5.	임시정부 항저우로 이동
1935.11.	임시정부 자싱(嘉興)으로 이동
1937. 4.	임시정부 전장(鎭江)으로 이동
1937. 7.15.	군사위원회 설치 결의
1937. 8.17.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결성
1937.11.23.	임시정부 창사(長沙)로 이동
1940. 9.	임시정부 충칭(重慶)으로 이동
1941.11.28.	대한민국 건국강령 선포
1941.12.9.	대일선전포고문 발표
1945. 5.	광복군 O.S.S.훈련 실시
1945. 8.15.	광복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 -

최초의 민주공화정부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부 수립
좌우통합정부	이념을 초월하여 다양한 조직과 인물이 통합된 정부
평등국가 지향	국민전체가 균등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 지향



II

3·1운동과 임시정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

1. 3·1운동*

3월 1일, 동시다발로 일어난 만세시위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다.

전후 처리를 위한 파리강화회의가 열릴 참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 때를 놓치지 않았다. 파리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당의 이름으로 한국 대표를 급파했다. 1919년 1월 18일 파리강화회의가 개막한 사흘 후인 1월 21일에는 고종이 급사했다. 국내외적 상황이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종교계와 학생들이 독립운동 준비에 나섰다. 때마침 2월 8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서울은 3·1운동을 잉태한 곳이었다.

천도교와 기독교는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울러 민족대표를 꾸렸고 경향각지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학생들은 일사분란하게 독립시위를 준비했다. 3월 1일 서울의 만세시위는 이른 새벽에 학생들이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시작되었다. 정오 무렵부터 학교를 빠져나온학생들은 속속 탑골공원에 집결했다. 반면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였다. 오후 2시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식을 갖고 경찰에 그 소식을 알렸다. 곧 헌병과 경찰에 체포되었다. 같은 시각 200여 명이운집한 탑골공원에서는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시위대는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시작했다. 서울 시내는 만세소리로 가득 찼다.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홈페이지(www.together100.go.kr)에서 인용한 것임

3월 1일에 서울에서만 만세시위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평양·진남포·안주(평남), 선천·의주(평북)·원산(함남) 등 6개 도시에서도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부지방에 자리하고 있는 도시였다. 평양에서는 오후 1시에 장로교, 감리교, 천도교가 각각 교회에서 독립선언식을 하고 시내로 나와 연합시위를 벌였다.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도 함께 만세를 불렀다. 진남포에서는 오후 2시에 감리교와 감리교계 학교 교사들이 주도하는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천도교인과 노동자들도 참여했다.

안주에서 오후 5시에 일어난 만세시위는 기독교 청년지도자들이 주도했다.

선천에서는 장로교계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정오에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거리로 나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천도교인들도 가담했다. 의주에서는 오후 2시 30분에 기독교인과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이 주도하고 천도교인이 연대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원산에서는 오후 2시에 장로교인과 감리교인이 연대해 만세시위를 벌였다.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도 함께 했다. 이처럼 서울을 포함해 7군데 도시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들은 연대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7군데 모두 철도역을 갖춘 도시로서 최남선이 작성한 〈기미독립선언서〉를 전날 혹은 당일 날 전달받아 낭독했다.

전국에서 매일같이 시위가 일어나다

3월 1일 7군데 도시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는 다음날부터 인근지역으로 확산되어갔다.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어난 276회의 만세시위 중 70%를 웃도는 197회가 북부지방에서 일어났다. 3월 중순을 넘어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중남부 지방에서 주로 일어났다. 3월 하순에 다시 북부지방에서 만세시위가 이어지면서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만세시위의 절정기를 이뤘다. 매일 50~60여회에 이르는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만세시위의 양상은 도시와 농촌이 달

랐다. 3·1운동은 도시에서 시작되어 농촌으로 번져갔다. 도시에서는 종교인과 학생들이 만세시위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학생들은 시위를 모의하고 주도했으며 등교를 거부하는 동맹휴학을 전개했다. 노동자들은 동맹파업으로 동참했다. 상인들은 상점 문을 닫는 철시투쟁을 벌였다.

농촌 시위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에 장터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번화한 거리에서 독립선언식이 거행되었고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옛날부터 농민항쟁에 자주 등장한 횃불시위, 봉화시위도 일어났다. 이처럼 3·1운동은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시위를 주도했고 동참했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누구든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하고자 했던 자발성은 폭발적이었다. 유림, 식민통치에 협조하던 면장·구장과 같은 관리는 물론 청소년들까지 누구든 조직하고 참여하는 자발성, 그것이 3·1운동이 전국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게 만든 힘이었다.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다

조선총독부는 만세시위의 확산 원인을 '선동적 문서의 배부'에서 찾았다.

학교나 교회에 비치한 등사기로 등사한 각종 유인물과 격문, 그리고 신문 등은 3·1운동을 확산하는 촉매제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 뿌려진〈조선독립신문〉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지하신문이 발간되었다. 지하신문은 만세시위 소식을 방방곡곡에 알려주는 배달부 역할을 했다. 지하신문과 함께 간단한 구호를 적은 전단·낙서·포스터, 시위계획이나 투쟁방침을 알리는 격문·사발통문, 관리의 사퇴나 일본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경고문·협박문 등의 유인물들이 사람들을 거리로 이끌었다.

3·1운동 당시 시위 현장에 태극기와 애국가가 등장했다.

시위 현장에는 다양한 깃발이 등장했는데, 태극기를 가장 많이 흔들었다. 태극기는 주로 만세시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작했다. 학생 이외에도 여성 노동자, 기생, 농민,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태극기를 만들었다. 시위현장에서만 태극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면사무소에 일장기 대신 태극기를 걸기도 했고, 집집마다 태극기를 내거는 마을이 등장했다. 만세시위에는 새로운 운동가도 등장했다. 대한제국이 망한 이후 숨죽이며 부르던 애국가도 만세시위에서는 당당하게 제창되었다. 3·1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애국가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3·1운동을 통해 새로운 시위문화가 탄생하고 있었다. 신문과 각종 유인물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은 만세시위를 널리 알렸다. 시위대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나라 상실의 고통을 절감했고 독립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3·1운동의 탄압

3·1운동은 3월 1일 시작되어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도시에서 농촌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확산되었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인구의 10%나 되는 200만 여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그 중 7,500여 명이 살해당하였고 16,000여 명이 부상하였다. 그리고 49개의 교회와학교, 715호의 민가가 불에 탔다. 경찰의 검거자 수는 무려 46,000여 명에 달했다. 19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검거자 중 19,054명이 검찰로 송치되어 이 중 7,81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 일본이 조선에 실시한 치안 법령은 다음과 같다. 통감부가 1907년에 제정한 「보안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물론 문서·그림의 게시나 기타 언동까지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해에 제정한 「신문지법」과 1909년에 제정한 「출판법」은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 등의 신문 발행을 억압하고 구국사상을 담은 많은 서적을 몰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에 오늘날의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찰범 처벌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한국인의 항일 투쟁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엄격히 단속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조선총독부는 1912년에 「조선형사령」을 공포하여 일본의 「형법」과 기타 형사 관련 법령들을 한국에 적용하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에는 급히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제령 제 7호)」을 제정해 만세시위에 참여한 한국인에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독립운동자의 경우,「보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전체 유죄 판결의 71.7%로 압도적이었다. 이어「형법」의 소요죄 위반이 21.8%에 달했다. 「출판법」과「제령 제7호」는 각각 3.5%와 2.1%밖에 되지 않았다. 3·1운동을 모의한 민족대표 대부분은 「보안법」,「출판법」,「형법」의소요죄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면사무소나 주재소에 방화하거나 순사와 헌병을 살상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인 민중들은 더 엄한 처벌을 받았다. 징역 5년 이상이 43명, 10년 이상이 21명, 무기징역이 5명에 달하였다. 중형의 경우,「형법」 상의 소요죄·방화죄·살인죄·강도죄·사기죄가 적용되었다.

민주주의, 평화, 비폭력

3·1운동은 민주주의, 평화, 비폭력의 정신이 빛난 독립운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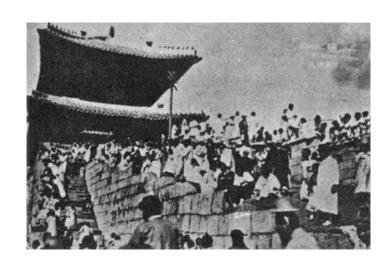
첫째, 3·1운동은 민족마다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마땅히 독립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저항운동이었다. 〈2·8독립선언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는 '무단전제이자 부정하고 불평등한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인에게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고, 종교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구속했으며 행정·사법·경찰 등 모든 통치기관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919년 3월 17일 러시아의 니콜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 한인이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는 일본을 민주주의의 공적이라 비판했다. 나아가 세계의 모든 민주

주의자는 독립투쟁에 나선 '우리 편'이라고 선언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독립운동은 자유, 정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민주주의 투쟁이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반포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미친 듯이 기뻐했다'고 한다.

둘째, 3·1운동은 세계를 향해 한국의 독립 없이는 동양 평화도 세계 평화는 없다고 외쳤다.

당시 한국 독립이 곧 평화의 실현이라는 평화담론이 광범히 퍼져 있었다. 대한국민의회가 3월 20일에 발표한 〈독립선언서〉는 '동양의 평화는 한국의 자주 독립에 있다'라고 단언했다. 〈기미독립선언서〉도 2천만 한국인을 위력으로 구속한다면 '동양의 영구한 평화'는 보장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셋째,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3·1운동을 모의한 종교계는 〈기미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의 하나로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로 하여금 어

디까지나 광명정대하게 하라'고 하여 비폭력의 원칙을 제시했다. 비폭력 평 화의 정신을 상징하는 직접행동이 바 로 만세시위였다. 3·1운동은 두 달 넘 게 이어진 반일투쟁이었지만, 시위대 에 의해 죽은 일본 민간인은 단 한 명 도 없었다.



3·1운동으로 빛났던 민주주의·평화·

비폭력의 정신은 독립운동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3·1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활약했던 학생, 청년, 노동자, 농민, 여성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대중운동을 펼쳤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산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중국 상해에서 한국독립운동자들이 수립했던 임시정부의 명칭이다.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민족운동가들의 모임, 신한청년당이 3·1 운동 이후 상해로 망명한 독립 운동가들의 모임,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4월 11일 정식으로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민주 공화 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신인 신한청년단은 독립을 위해 강국들과의 외교적 위치를 선점하고자 1919년 파리평화회의에 대표단으로 김규식을 파견하는 등, 국내외 동포사회에 통할 조직을 확대 하면서 외교활동이나 독립전쟁 등을 지도, 통할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도 마찬가지였는데, 임시정부의 설립 초기에는 연통부와 교통국 등 비밀조직을 운영하여 외교활 동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는 정상적인 정부 외교가 아니었으므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치권이 유효하게 미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법상 정부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민족에게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는 통치권은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강탈한 일제의 권력이었기 때문에, 통치권의 현실적 존재는 이념상 부정되어야 했다.

그리고 외교활동은 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 이뤄졌는데, 대미외교는 초기에, 대중외교는 종전기에 보다 두드러졌다. 그리고 초기에 파리통신부가 주도한 강화회의와 유럽 각국과 소련 등의 외교

^{* 3 · 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홈페이지(www.together100.go.kr)에서 인용한 것임

가 있었다. 초기 대미외교가 주종을 이루었던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미국이 주도하였다는 점, 또 임시정부를 이승만·노백린·김규식·안창호 등 미국 유학 또는 미국과 인연이 많은 인사가 집권하고 있었던 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제도시인 상해에 있었으므로 구미와의 창구가 열려 있었던 점 등에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강화회의에 대한 외교도 주로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3개월 간 계속된 1921년 워싱턴회의(일명 태평양회의) 때도 미국정계를 창구로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제국주의가 국제정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당시, 민족자결의 원칙은 독일·오스트리아·터키 등 동맹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었을 뿐, 도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간 외교로, 그들이 한국독립을 위한 인도주의적 고려를 심각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서재필徐載弼의 활약이 매우 커서, 미국인이 한국친우회를 결성할 정도였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적 처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만주와 연해주沿海州의 독립군단체는 일제와의 독립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다.

우리의 나라에 이르는 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베르사이유 강화체제에 의한 국제적 안정 기조를 고집하는 열강의 냉대와 상해·만주·연해주·하와이 등 해외 각처에 산재한 동포사회 사이의 교통·통신의 장벽, 당해국가인 중국·소련·미국 등의 방해 또는 방관적 비협조로 애초의 계획대로 독립운동을 계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헌정을 기초로 한 민주공화정부 체제였으나, 운영 기술이 미숙하여 국민적 지지기반이 붕괴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원들은 독립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적 기반을 회복하는 어떤 방도를 찾아야만 하였다. 정부 외곽에서는 공론公論 수합을 위해 국민대표회⁽¹⁹²³⁾가 소집되었고, 두 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으며^(1925·1927), 민족유일당촉성운동⁽¹⁹²⁷⁾ 등을 추진하였다. 상

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919년 임시헌법(제1차 개헌), 1925년 임시헌법(제2차 개헌), 1927년 임시약헌(제3차 개헌), 1940년 임시약헌(제4차 개헌), 1944년 임시헌장(제5차 개헌) 등 5번에 걸친 헌법 개정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형태의 주류는 의원내각제에 이상을 두고 있었다. 다만 1차 개헌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한 절충형을 취하였고, 3차 개헌에서 국무위원 중심제에 의한 스위스방식의 관리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었을 뿐, 대개는 의원내각제를 따르고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의원 내각제를 이상적인 제도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성정부 조직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와 위원내각제의 절충안으로 개정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절충안에 따라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을 취임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 독주라는 정치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5년 2차 개헌을 단행하여 국무령國務領을 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침체한 시기여서 정부적 권위를 상실하고 있었다. 2차 개헌은 오래가지 못하고, 2년 뒤인 1927년 제3차 개헌을 단행하여 관리정부형태로 행정부를 의정원에 완전히 예속시켰다.

행정부의 수반은 주석이었지만, 국무회의에서 선출한 회의의 의장 이상의 권한은 없었다. 그러므로 국무위원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행정부는 사무실을 옮기는 문제까지일일이 의정원의 승낙을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원의 상임위원회으로부터 감독받아야 했다. 1927년 제3차 개헌에서 행정부가 의정원의 철저한 감독을 받는 것 외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민족대당民族大黨이 결성될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권력은 민족유일당에 속한다는 것이

다. 이것은 이당치국^{以黨治國}하는 소련 또는 중화민국 정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임시정부 주변에서 민족유일당촉성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때마침 일어난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 간의 국공분열國共分裂로 민족유일당촉성운동은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았다. 국내에서의 민족대당은 신간회라는 조직으로 나타나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해외의 민족대당 형성은 실패하여 독립운동 진영이 개편되는 결과를 나았다.

1927년 3차 개헌 이후 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한국국민당·조선민족혁명당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후 정당들은 조선혁명당池靑天·한국독립당趙素昂·한국국민당金九 등을 통합한 한국독립당金九과 우파사회주의계열인 조선민족혁명당金奎植·金元鳳의 양대 정당으로 통합, 정비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지기반이 된 것은 한국독립당이었다. 3차 개헌 이후에도 침체된 분위기에서 어려움을 겪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대한민국임시정부 계열단체인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이단행한 1932년 이봉창李奉昌의 동경의거東京義學와 윤봉길의 상해의거로 활기를 찾게 되었다. 비로소 외교와 독립전쟁의 분할이 합쳐지는 지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는 일제의 발악적인 반격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난을 야기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났고, 뒤이어일어난중일전쟁(1937)으로 중국 각처를 옮겨 다녔다. 상하이[上海, 1919]에서 시작하였으나, 항저우[杭州, 1932], 전장[鎭江, 1935], 창사[長沙, 1937], 광둥[廣東, 1938], 류저우[柳州, 1938], 치장[綦江, 1939], 충칭[重慶, 1940] 등지를 차례로 이동하였다.

다가선 독립, 다가온 광복

1940년 제4차 개헌은 주석^{主席}을 중심으로 한 내각책임제의 형태로 복귀하였다.

수반을 그대로 주석이라고 호칭하였지만, 주석은 대외적으로 국가원수였으므로 대통령중심제의 일면도 가미된 것이다. 주석은 의정원에서 선출하게 하고 권한도 증대시켰다. 그리고 의정원의 상

임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였다. 그런데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1942년 충칭에 있는 독립운동자의 모든 당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통합의회가 성립되면서, 다시 개헌작업에 착수하였다. 5차 개헌은 1941년에 발포한 「건국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1944년 발표하였다. 이 때 정부형태는 부주석제를 신설한 것 외에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특이한 것은 행정부를 이중구조로 조직한 점이다. 즉, 국무위원회라는 정책결정기구가 있고, 그 밑에 행정각부를 두고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건국강령建國綱領을 발표(1941)하고 헌법을 개정(1940·1944)하면서 광복 한국의 새로운 통치기반을 다져나갔다. 위의 사실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인의 이념적 정부로 독립운동의 통합을 시도하였다는 점, 실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8·15 광복까지 단절되지 않고 존재한 유일한 기구였다는 점, 또 국제적으로 한국인의 독립의지가 감상이 아닌 현실적 요구라는 것을 보여준 실체로서 존재하였다는 점 등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8·15광복은 영국·미국·소련 등 열강의 제국주의적 독단적 판단으로 의해 한국민족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뜻과는 다르게 처리되고 말았다.

III

우리 고장에서 일어난 3·1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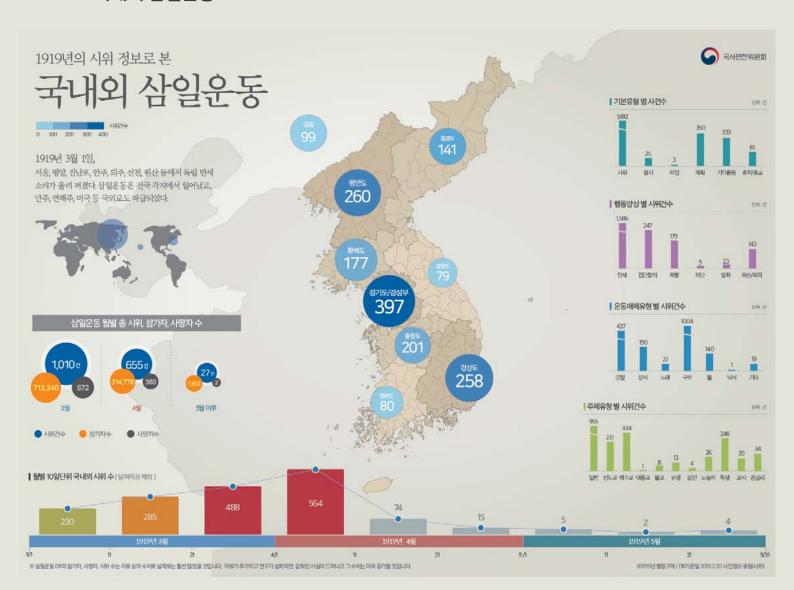
1. 3·1운동의 규모

시위건수 및 참여인원*

7 8	지하스	おけてして	LLDFT	ᆸ사대	체포자	훼소	훼소	훼소
구 분	집회수	참가자수	사망자	부상자	제도시	교당	학교	민가
경기도	297	665,900	1,472	3,124	4,680	15	-	_
황해도	115	92,670	238	414	4,218	1	-	_
평안도	315	514,670	2042	3,665	11,610	26	2	684
함경도	101	59,850	135	667	6,215	2	-	_
강원도	57	99,510	144	645	1,360	-	-	15
충청도	156	120,850	590	1,116	5,233	-	-	-
전라도	222	294,800	384	767	2,900	-	-	_
경상도	228	154,498	2,470	5,295	10,085	3	-	16
회인·룡정 기타 만주	51	48,700	34	157	5	-	_	-
총 계	1,542	2,023,098	7,509	15,961	46,948	47	2	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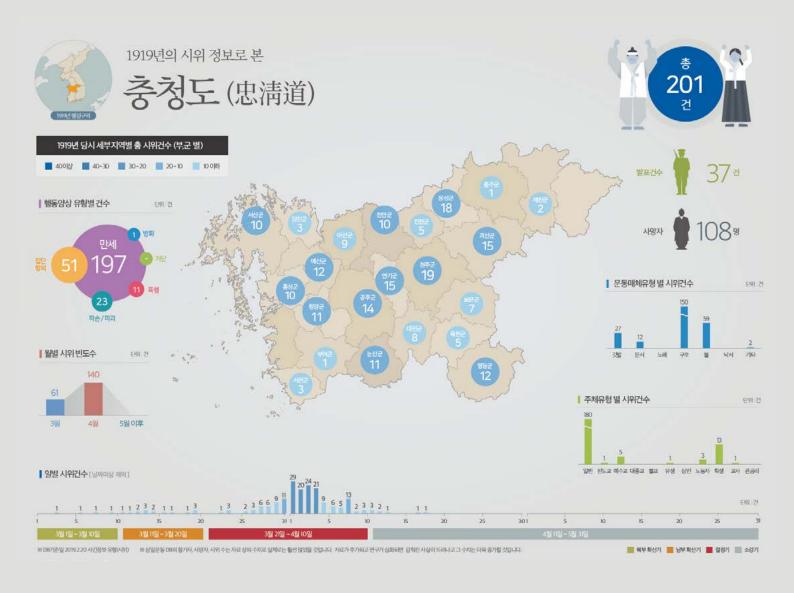
^{*} 출처: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박은식전집』 상권. pp.534-555. 신용하, 「3·1운동의 비폭력 민족·민주혁명의 특성과 세계사적 의의」,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 자료집』(2019)에서 재인용. 이 수치는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samil)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의 자료는 일제의 재판과 조서 기록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보다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삼일운동*



^{*}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자료. 확인된 일제의 자료만을 근거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축소의 가능성이 크다.

충청지역 3·1운동



2. 충청의 3·1운동*

대 전

대전^{大田}에서는 3월 27일 장날을 기하여 대전시장에서 수백명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불렀으며, 4월 1일에도 대전 시장에서 4백명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했는데, 일제 경찰이 발포하여 2명이 순국하고 8명이 부상당하였다. 유성면^{儒城面}에서는 3월 16일 유성 시장에서 3백명의 군중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고, 4월 1일에는 70여명이 유성 헌병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는데, 일제 헌병대의 발포로 1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수명이 부상당하였다. 3월 25일에는 동면^{東面}, 3월 28일에는 유천면^{柳川面} 농민들이 봉기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3월 29일에는 기성면^{杞城面}의 가수원리^{佳水院里}부근에서 약 4백명의 농민이 각각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4월 1일에는 회덕면懷德面과 산내면비內面 농민들이 봉기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에서는 강경읍에서 3월 10일 장날을 기하여 5백명의 군중이 옥녀봉^玉女峯으로부터 태극기를 흔들며 내려와 독립만세 시위행진을 감행했으며, 3월 20일에도 1천명의 군중이 4대로 나 뉘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고, 3월 31일부터 강경읍내 한국인상점 3백호가 철시를 단행하 였다. 4월 1일에는 철시 중에 강경읍에서 또다시 1천명의 군중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했으

^{*} 지역별 3·1운동 사례는 1989년 5월 독립기념관에서 편찬한 연구발간물 「3·1독립운동」을 1차 자료로 하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홈페이지 (www.together100.go.kr/lay2/S1T9C38/contents.do)와 차종환 (2019), 「3·1운동 숨은 이야기」제9장 지역의 3·1운동(pp 222-259)을 참고하여 재편집한 것임을 밝힘

며, 4월 4일에도 약 5백명의 군중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논산읍에서는 3월 12일 1천명의 군중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했고, 4월 3일에도 장날을 기하여 6백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는데, 일제 경찰이 발포하여 1명이 순국하고 8명이 부상당하였다. 3월 31일에는 연산면^{連山面}, 4월 1일에는 두마면^{豆磨面}과 은 진면^{恩津面}, 4월 3일에는 광석면^{光石面}과 노성면^{魯城面}, 4월 12일에는 벌곡면^{伐谷面} 농민들이 봉기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주군公州郡에서는 공주읍내에서 3월 15일과 4월 1일 수백명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했으며, 4월 7일에는 공주 시장에서 약 1천명의 군중이 격렬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상면新上面, 지금의 유구면에서는 3월 14일 장날을 기하여 유구維鳩시장에서 5백명의 장꾼들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하였다. 정안면에서는 4월 1일 8백여 명의 농민들이 봉기하여 일제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했는데, 일제 경찰이 발포하여 1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중상 1명과 경상 10여명을내었다. 또한 4월 1일에는 의당면儀堂面 농민 4백명과 장기면長岐面 농민 1백명, 4월 2일에는 의당면 농민 6백명과 계룡면鷄龍面 농민 1천명, 4월 3일에는 탄천면攤川面 농민 1천 5백명이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연기군 $ilde{\pi}$ 岐郡에서는 전의면 2 義 $ilde{a}$ 농민들이 장날을 기하여 3월 31일 전의 시장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대규모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켰고, 3월 15일 전동면 2 東 $ilde{a}$ 농민 수백명도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했다.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군내의 북면 1 대한·서면·남면·동면의 4개면에서는 연이어 대대적인 횃불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금남면 4 第 4 6에서는 3월 23일 대평리 4 7 시장에서 수천 명, 4월 3일에는 남면의 연기리 시장에서 5백

명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천안군^{天安郡}에서는 3월 14일 목천면^{木川面}의 목천보통학교 학생 120명이 교정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부근 일대에서 시위행진을 감행하였다. 3월 20일 입장면^{笠場面}의 양대^{良垈} 시장과 입장 시장에서도 7백명의 농민들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했고, 3월 28일에는 입장면에 있는 직산금 광회사稷山金鑛會社의 광산노동자 2백명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하여 헌병주재소를 습격했는데 일제 헌병대의 발포로 2명이 순국하고 4명이 부상당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30일 다시 입장에서 3백명의 농민들이 격렬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천안읍에서는 3월 29일 약 3천명의 군중이 대규모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하였다. 3월 30일에는 수백명의 풍세면豊歲面 농민들이 20여개 소에서 횃불시위를 전개하였다. 3월 31일 성환면成歡面에서 수천 명의 농민들이 대규모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하였다. 4월 1일에는 갈전면葛田面, 지금의 병천면 병천병川시장에서 3천명의 군중이 <대한독립>이라고 쓴 큰 기에 태극기를 달고 대규모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하였다. 16세의 소녀 유관순^{柳寬順}도이 시위에 선도적으로 활약하였다. 일제 헌병대가이 평화적 시위대에 발포하여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군중들은 격노하여 시체를 메고 주재소에 진입하여 일제의 만행을 규탄했으며, 천안과 병천 사이의 전선을 절단하고 면사무소와 우편소에도 진입하여 시위하였다. 이날의 병천 시위에서 19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3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병천의 3·1운동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격렬한 운동이었을 뿐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격렬한 독립만세 시위 운동의 하나였다.

부여군扶餘郡에서는 3월 7일 읍내에서 천도교도들과 기독교도들 중심의 독립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서천군 8 川郡에서는 장날을 기하여 3월 29일 마산면 8 니面 신장리 8 시장에서 약 2천명, 4월 30일 종천면 6 川面에서 약 2천명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홍성군洪城郡에서는 3월 7일 홍성읍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으며, 3월 21일에는 은하면銀河面 대천大川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장곡면長谷面에서는 4월 7일 약 5백명의 농민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하고, 이튿날인 4월 8일 밤에는 약 60명의 농민이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파괴하였다. 4월 4일 밤에는 홍성면·홍북면洪北面·금마면金馬面·홍동면洪東面·구항면龜項面의 5개면 24개 촌락에서 일제히 횃불을 올리어 대대적인 횃불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청양군^{靑陽郡}에서는 4월 5일 청양읍에서 1천명의 군중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했는데, 일제 헌병대가 발포하여 2명이 순국하였다. 정산면定山面에서도 역시 4월 1일 정산시장에서 7백명의 장 꾼들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했는데, 일제 헌병대가 발포하여 2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4월 6일에는 운곡면^{雲谷面}, 4월 7일에는 청장면^{靑場面}과 사양면^{斜陽面} 농민들이 대대적으로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예산군禮山郡에서는 3월 31일의 예산읍의 장날 60여명, 4월 3일의 신예원新禮院 장날 3백여명, 4월 5일의 예산읍 장날에는 다시 2천여명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하였다. 대흥면^{大興面}에서는 3월 13일 대흥공립보통학교 학생 3백명이 대흥 시장에 뛰어나와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감행하였다. 4월 3일에는 고덕면^{古德面}의 대천^{大川} 시장에서 1천명, 4월 4일에는 덕산면^{德山面}의 덕산 시장에서 7백명과 광시면^{光時面}에서 4천명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아산군 $^{ar{\mathcal{T}} \sqcup \overline{\Pi}}$ 에서는 온양면 $^{ extit{B}ar{\Pi}}$ 에서 3월 12일 2백명, 3월 14일과 15일에 수백명이 연이어 독립

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하였다. 영인면靈仁面의 아산구읍에서는 3월 14일 아산 시장에서 2백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둔포면^{屯浦面}에서는 4월 1일 운룡리^{雲龍里}의 광산소재지에서 광부들과 농민들이 봉기하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일본인 소유의 광혈鑛穴 20 개소를 파괴하였다. 학성면傷成面에서는 농민 약 2백명이 학성산 위에서 횃불시위를 전개하고 내려와 헌병주재소를 공격하고, 면사무소·보통학교 앞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선장면^{仙掌面}에서도 4월 20일 선장 시장에서 2백명의 장꾼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헌병 주재소 앞에이르러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산군瑞山郡에서는 서산읍에서 3월 16일과 3월 27일에 두 차례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으며, 해미면海美面에서는 3월 19일과 3월 24일에 두 차례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정미면真美面에서는 4월 4일 천의天宜시장의 장날에 1천명의 장꾼들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하여 일제 경찰관 주재소를 공격하고 파괴했으며, 4월 8일 밤에는 농민 약 3백명이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는데, 일제 경찰이 발포하여 1명이 순국하였다. 대호지면大湖芝面에서는 3월 19일의 장날 시위에 이어 4월 8일 6백명의 농민들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했는데, 일제 경찰이 발포하여 2명이 순국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다. 운산면墨山面에서는 4월 8일에 농민 4백명이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는데, 일제 경찰이 발포하여 2명이 순국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다.

당진군^{唐津郡}에서는 면천면^{沔川面}에서 3월 10일 보통학교 학생 2백명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켰으며, 4월 4일 밤에 8개리의 농민들이 횃불시위를 전개하였다. 당진면에서는 4월 2일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고, 4월 4일 밤에 횃불시위를 전개하였다. 합덕면^{合德面}에서는 4월 2일 수백명의 농민이 봉기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으며, 송악면^{松嶽面}에서도 4월 5일 수많은 농민

들이 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충청남도에서 이상과 같이 3월 3일부터 4월말까지 약 60일간 전도에 걸쳐서 3·1운동을 완강하게 전개했는데,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의하면, 집회횟수는 110회, 참가인원수는 94,800명, 사망자는 491명, 부상자는 906명, 피체포자는 5,076명으로 집계되었다.

충청북도

충북의 운동이 다른 도보다 늦은 것은 천도교나 기독교 계통의 조직이 강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있지만, 교통이 비교적 불편한 까닭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시위운동은 처음부터 격렬하고 끈질기게계속되었다. 충북은 기독교측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간혹 천도교도가 주동한 곳은 있었다. 그 밖에 양반층과 서당 생도가 주도한 곳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운동은 농민이일으키고 있었다. 그 밖에도 충북에서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영동과 음성의 시위를 들수 있다. 충북의 만세 시위운동은 경찰 주재소나 헌병 파견소 또는 면사무소 등 일제의 관서를 습격 파괴한 행동이 많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밤에 산으로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내려오는 곳도 있었다. 이 같은 봉화운동은 충주군 관내에서 가장 많았는데, 간혹 다음 날 아침의 과격한 시위운동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이것이 곧 이 지방의 특색이기도 하였다.

이 같이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충북의 만세운동은 자못 치열해서 총 운동횟수의 절반에 가까운 28개 지역에서 일본 군경과 충돌하였다.

청주淸州에서는 청주읍의 장날인 3월 7일, 3월 22일, 4월 2일 읍내에서 대규모의 독립만세 시위운

동이 전개되었다. 강내면^{江內面}에서는 3월 23일, 24일, 27일 밤에 동리마다 뒷동산에 수십개이 횃불을 올리고 대대적인 횃불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미원면^{米院面}에서는 3월 30일 장날을 기하여 미원 장터에서 1천명의 농민들과 장꾼들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는데, 일본군 청주수비대가 발포하여 1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3명이 부상당하였다. 그러나 미원면 농민들은 불굴의 투지로 4월 1일에도 천도교도들을 중심으로 약 3백명이 산 위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다시 전개하였다.

부용면^{芙蓉面}에서는 3월 31일 부광리 역 앞 광장에서 1천명의 군중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했는데, 일본군이 발포하여 정인옥^{鄭寅玉}외 수명이 순국하였다. 북일면 1 는 1 에서는 3월 21일 내수리 시장에서, 3월 25일과 4월 1일·2일 세교리 구시장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문의면 1 英面에서는 4월 6일 1천 3백명이 대대적인 횃불시위를 벌였다.

괴산군槐山郡에서는 홍명희洪命喜·이재성李載誠·홍용식洪用植 등의 주도로 괴산읍 장날인 3월 19일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수천 명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봉기했으며, 3월 24일 장날에 7백명, 3월 29일의 장날과 30일에도 1천 5백명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는데, 30일의 시위 때에는 일제 경찰이 발포하여 5명이 순국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다. 그러나 괴산군민들은 굽히지 않고 4월 1일에도 1천명이 괴산면 사무소 앞에 쇄도하여 독립만 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장연면長延面에서는 박영래^{朴泳來} 등이 중심이 되어 4월 1일 수백명의 농민이 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면사무소를 습격하였다.

청당면淸塘面에서는 3월 30일 장날을 기하여 장터에서 2천명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고 우편소와 주재소를 습격했는데, 일제 경찰이 발포하여 7명이 순국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청천면靑川面에서는 4월 1일의 청천 장날 약 3천명의 군중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하였다. 소수면沼壽面에서는 4월 2일에 약 5백명, 도안면道安面에서는 4월 10일에 약 3백명의 농민이 독립만

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음성군陰城郡에서는 음성읍 장날을 기하여 3월 18일과 3월 28일에 수천 군중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하였다. 소이면蘇伊面에서는 3월 19일 수천 명의 군중이 주재소를 포위하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는데, 일본군 충주수비대가 출동 발포하여 6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소이면 농민들은 굴하지 않고 4월 1일에도 한천漢川시장에서 수백명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하였다. 4월 2일에는 삼성면=成面에서 6백명, 감곡면 † 수面에서 1백명, 금왕면 † 年面에서 1천명, 맹동면 $^{\pm}$ 대面에서 1천명의 농민들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으며, 대소면 † 차面에서는 1천명의 농민들이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불태워 버렸다.

진천군鎭川郡에서는 진천읍에서 3월 15일 소규모의 독립만세 시위가 있는 후에, 4월 2일 전군에서 봉기하기로 하여 진천읍·백곡면^{柘谷面}·광혜원廣惠院 등지에서 대규모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전 개되었다. 광혜원에서는 장날인 4월 3일에도 약 2천명의 군중이 격렬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 개하였다.

제천군^{堤川郡}에서는 3월 17일 제천읍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규모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는데, 일제 경찰이 발포하여 현장에서 1명이 순국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송학면^{松鶴面}에서는 농민 70여명이 4월 18일 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충주군^{忠州郡}에서는 3월 12일 수천 명의 군중이 충주읍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하였다. 신

니면^{薪尼面}에서도 장날을 기하여 4월 1일 용원 장터에서 2백명의 장꾼들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보은군^{報恩郡}에서는 4월 3일 보은면, 산외면^{山外面}이식리^{利息里}와 구치리^{九峙里}등지에서 각 1백명씩의 농민들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켰다. 수한면^{水汗面}에서는 농민 약 60명, 삼승면^{三升面}에서는 약 30명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옥천군^{沃川郡}에서는 3월 19일 옥천읍내에서 수많은 군중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켰다. 이원^{伊院}에서는 3월 27일의 장날을 기하여 수백명의 농민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는데, 일제 헌병대가 발포하여 2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다수가 부상당하였다. 청산면^{靑山面}에서는 3월 26일, 4월 2일, 4월 4일 읍내에서 연이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했는데, 4일의 시위에서는 수천 명의 농민들이 헌병 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부르자 일제 헌병대가 발포하여 5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하였다.

영동군^{永同郡}에서는 장날을 기하여 4월 4일 영동면 시장에서 약 2천명의 군중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했는데, 일본군이 발포하여 현장에서 6명이 순국하고 8명이 중상을 당하였다. 양산면陽山面 농민들은 3월 30일에, 학산면鶴山面 농민 3백명은 4월 3일에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하였다. 황금면黃金面 농민들은 3월 31일 수백명이 정거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 시위행진을 전개했고, 황간면黃澗面 농민들은 황간역 앞에서 4월 1일 저녁 수백명이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매곡면梅谷面 농민들은 4월 2일에 1백명, 4월 3일에 1백명, 4월 4일에는 8백명의 농민이 연이어 면사무소 앞에 모여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봉기하였다. 양강면揚江面 농민 2백명도 4월 3일 괴목리의 일제 경찰과 주재소에 쇄도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충청북도에서는 이상과 같이 3월 7일부터 4월 20일 퇴조기에 들어갈 때까지 약 45일간 완강하게 3·1운동을 전개했는데,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의하면, 집회횟수가 44회, 참가인원수는 25,750명, 사망자수는 99명, 부상자수는 210명, 피체포자수는 157명으로 집계되었다.

泉面 동원동東元洞 농민들, 4월 2일에 벽진면^{碧珍面}의 약 3백명의 농민들이 해평동^{海平洞}에 모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으며, 4월 3일에는 지사면^{志土面} 농민들, 4월 6일에는 대가면^{大家面} 청년들이 독립만세를 불렀다.

고령군高靈郡에서는 4월 6일 우곡면^{牛谷面} 도진동^{桃津洞} 농민 30명, 4월 8일에 우곡면 대곡동大谷 洞 농민 50명이 마을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경상북도 3·1운동은 이상과 같이 3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약 60일간 전도에 걸쳐서 전개되었는데, 박은식의《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의하면, 집회횟수는 93회, 참가인원수는 63,678명, 사망자는 1,206명, 부상자는 3,276명, 피체포자는 5,073명으로 집계되었다.

IV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가치

- · 여기 수록된 10가지 가치는 토론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예시임
- · 토론 참여자는 여기 제시된 가치를 참고용으로 활용

1. 가치 발견을 위해 사용한 5가지 문건

• 종교지도자 33명이 민족을 대표해 서명하였으며, 1919년 3월 1일 만세시위에 서 낭독 • 자유와 평등, 인권 등 근대적인 사상과 조선의 독립이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3·1독립선언서 인류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제주의 시각이 반영 • 비폭력을 내세우면서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독립을 향한 민족의 뜻을 외치자는 결연함이 강조 • 1919년 2월 8일 동경 유학생들이 조선청년독립단의 이름으로 발표 • 일본의 침략과 국권 찬탈을 '사기와 폭력'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 2·8독립선언서 • 3·1독립선언서 작성에 참고가 되었고, 3·1운동 준비에 크게 영향을 미침 • 1919년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39명의 이름으로 발표 대한독립선언서 • 일제 침약의 부당함과 대한 독립의 정당함을 선언함 •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해야 함을 강조 •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 대한독립 • 간도에 있는 애국부인회 소속 8명의 이름으로 한글로 작성하여 발표 여자선언서 • 여성들도 적극 나서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 대한민국 • 1919년 4월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면서 만든 최초의 헌법 임시정부헌장



1 3·1독립선언서



2 대한독립선언서

2. 3·1운동과 임시정부의 가치(예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가치 목록

그들이 꿈꾼 국가	핵심내용				
자주독립국가	외세의 간섭과 침략 없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나라				
자유국가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평등국가	성별·신분·빈부에 따른 차별이 없는 나라				
문화국가	문화적 창의성이 살아 숨 쉬는 나라				
사회통합국가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인이고 함께 공존하며 법이 지배하는 나라				
인본주의 국가	그 모든 것보다 사람이 근본이고 우선인 나라				
복지국가	국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정의로운 국가	불의와 부정이 없이 공정하게 다스려지는 나라				
평화국가	국가간 호혜평등을 실현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				

자주독립국가

가치 및 이념

민족의 주권과 영토를 타국에게 침해받지 않고 자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 장할 수 있는 국가

가치를 표명한 시대적 배경

강화도조약 이래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의 주권을 억압해왔고, 1910년 이래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권을 침탈하고 영토를 침략하였다. 이어 무단통치라는 무자비한 방법으로 한민족은 생존권을 위협당해 왔다. 제1차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되고 동맹국들의 식민지가 독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민족 역시 민족의 주권의 회복과, 일본・중국 등 이민족의 개입을 배제한 한민족의 독립 국가 건설을 천명하게되었다.

현재적 해석

현재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주독립국가임은 분명하나 세계화 시대에 맞춰 국가 간의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정치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혀 자주적 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타국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 노골적이고 직접적 정치적 개입은 할 수 없더라도 군사적 개입, 경제적 압박 등은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자국과 자국민의 안전과 이득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정치ㆍ경제ㆍ문화적 주권을 타국에 침해 받지 않는 국가를 자주독립국가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그것이 한민족만의 자주독립이었다면 현재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 아래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의 자주독립을 의미한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가진 국민들을 인정하고 이들의 삶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포용적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자유국가

가치 및 이념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

가치를 표명한 시대적 배경

유교적 공동체이자 신분제 사회였던 전근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나 천 부적 기본권 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못했다. 근대 문물의 도입과 함께 이에 대한 자각이 싹틀 무렵 일제에 강점을 당하면서 국가의 주권이 침탈당 했고, 민족 모두의 생명, 안전, 자유 등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생존 자체 를 위협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정치적 독립 뿐 아니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독립 운동가들은 3·1운동의 과정에서 일제의 정치적 침략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타국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정치 · 경제 · 문화적 자유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1948년 헌법의 제정과 동시에 우리 사회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헌

현재적 해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후로 참정권에서 행복추구권까지, 자유와 인권에 대한 논의는 깊어져왔고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제반 제도와 문화를 구성해왔다. 최근 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 판단을 받으면서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투표권, 청소년의 참정권, 아동의 권리 등은 매우 기초적인 권리임에도 충분한 보장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한편 개인들의 과도한 '자유'의 추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다수 목격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유의 개념을 지나치게 경제적 권리, 자본주의적 자유에 국한해 인식하고 추구하면서 경제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잦다. 또 언론ㆍ출판 등의 자유를 내세워 가짜뉴스를 생산ㆍ유통하고, 여혐ㆍ남혐, 이슬람 혐오, 동성애 혐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비난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의 공존을 염두에 둔 자유와 기본권의 추구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평등국가

가치 및 이념

3·1 운동의 정신을 담은 각종 선언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함을 선포,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헌장 역시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모두 평등하다'고 규정, 모든 인간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을 천명함

가치를 표명한 시대적 배경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 폐지로 상징되는 법적 평등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회 속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으며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는 이러한 사회적 차별의 개선은 미루어진 과제가 되었다. 백정 출신이었던 사람은 여전히 천민 취급을 받아야 했고 축첩제도라는 악습은 여전히 남아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결혼 생활을 가로 막았다. '어린이'이라는 표현이 없던 시절 아동과 청소년들은 '미성년'으로서 인격을 존중받지 못했다.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 지주의억압에 고통스러워하던 소작농민의 권리도 마찬가지였다. 3·1 운동은 일제를 몰아내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 평등국가를 만들자는 의미였다. 이러한 정신은 1920년대 국내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적 해석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평등의 가치는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는 이상일지 모른다. 빈부 격차에 따른 차별, 능 력주의라는 이름하에 가해지고 있는 약자에 대한 차별,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등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 때 문이다. 3·1 운동 속 평등 국가를 위한 외침이 현재적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화국가

가치 및 이념

인간 정신의 표현인 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스스로 창조하는 활동은 물론시대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전보다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함

가치를 표명한 시대적 배경

조선을 강제로 침탈한 일제는 반만년 이어온 우리 민족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일본의 제도와 문화를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족에게 강요했다. 3·1운동을 일으킨 우리 선조들은 인류의 삶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모든 인류가 자신이 원하는 문화를 스스로 일구며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도 천명하였다.

현재적 해석

현대를 문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한류 문화가 상징하듯이 우리다운 것이 다른 민족, 나라에도 감동을 줄 수 있으며, 인류 문화 창달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그 엄혹한 상황에서도 문화의 중요성을 잃지 않음으로서 인간 정신의 고결함을 지키고자 했으며, 이런 정신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통합국가

가치 및 이념

사회적 분열과 갈등,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 온 국민이 공동체에 소속감과 애정을 갖는 나라, 공동체의 일에 서로 나서고 돕는 그런 나라

가치를 표명한 시대적 배경

조선 사회는 철저한 신분사회였다. 대한제국에 이르러 노비해방을 비롯하여 신분철폐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제에 강제 병합되었다. 3·1운동을 일으킨 우리 선조들은 과거의 신분 사회가 아닌, 계급과 성별, 빈부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헌신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제로부터 독립은 우리 스스로 이런 차별과 배제 극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적 해석

신분제는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사회적 지위나 외모 혹은 발언 능력과 빈부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소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차별과 배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효율화된 관료제적 시스템에 의해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품이나 서비스 기계처럼 여겨지는 자기소외도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선조들이 꿈꾸었던 차별과소외, 배제 없는 공동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이다.

민주공화국

가치 및 이념

민주공화국은 민주국가와 공화국의 합성된 개념으로, 민주국가란 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화국은 권력이 일부에 의 해 독점되지 않고, 권력이 만인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법치, 권력분립, 공적 이익과 시민의 덕성이 강조되는, 모두를 위한 나라를 의미함

가치를 표명한 시대적 배경

'민주공화'라는 단어는 대한유학생회학보(1907), 대한협회회보(1908), 서 북학회월보(1909) 등에서 처음 나타나며 주로 군주정이나 전제정치 등에 반대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표자를 직접 뽑는 민주 공화제는 갑신정변부터 독립협회까지 이어온 '입헌군주제'에 대한 대항적 개념이자 새롭게 꿈꾸는 국가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했다. 일본 군국주의 아 래에서 '민주공화국'은 우리나라 독립의 방법과 내용, 목적이 되었다.

현재적 해석

권위주의 시기에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민주공화국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무분별한 발전, 경쟁 등으로 우리의 공공성이 급속도로 파 괴되는 현실이다. 임시정부 헌법부터 대한민국의 헌법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추구한 삼균주의와 형평주의를 뼈대로 삼는 공화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만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을 실현하 고 발전시켜야 한다.

인본주의 국가

가치 및 이념

어떤 사상이나 이념으로도 인간을 수단화, 도구화하지 않고, 국가나 단체의 존재와 목적보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 가치를 더 중시하는 인간 존중의 나라

가치를 표명한 시대적 배경

1917년 러시아에서 평등을 이상으로 삼은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유럽과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3·1 운동 이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단체를 조직하여 사회 변화를 주도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수많은 청년회가 조직되었고, 농민·노동·여성 단체도 활발하게 결성되었다. 신분, 출신, 세습 등 억압과 차별로부터 사회 저항 운동이 독립운동과 함께 곳곳에서 일어났다.

현재적 해석

인본주의는 오늘날 '인권'으로 발전하였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적, 종교, 직업,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보편적 권리이다. 또한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한 개인이 인권을 갖는 다는 것은 동시에 남의 인권 역시 존중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나의 인권이 사회적·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듯 타인의 인권도 사회적·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복지국가

가치 및 이념

모든 국가 구성원이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을 보살피고 지원해주는 나라

가치를 표명한 시대적 배경

인간은 스스로 존엄한 존재이므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행복 하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며 산다는 것을 뜻한다. 보 다 좁게는 국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이나 고통을 강요받지 않으며 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3·1운동이 일어났던 일제강점기는 그러지 못했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에게 직접적인 지배를 당했고, 조선총독부라 불리는 정부는 조선 사람들을 돌본다기보다는 감시하고 억압했다. 즉, 조선 사람들을 수탈의 대상으로만 볼 뿐,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이자 권리자로 보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니국민들의 행복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이 시기 독립운동을 하며 저항했던 사람들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묻기 시작했다.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전근대 왕조국가에서 조선이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는 소수의 특권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복리추구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보았다.

현재적 해석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충분히 조력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정부는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한다. 복지로의 발돋움은 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한국 사람들은 1919년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식민지 조선 사람들이 만들고자 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고민은 현실성의 측면에서 증세와 복지라는 또 다른 논쟁을 낳기도 한다. 그 논쟁은 개인의 재산권으로 언급되곤 하는 자유권과 국민 전체의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문제로까지 나아간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대한 꿈은 이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에 기초하여 사회권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실현의 꿈으로 우리에게 재탄생하고 있다.

정의로운 국가

가치 및 이념

국민 누구도 부당한 권력이나 잘못된 사회적 압력에 의해 대접받지 않고, 정 당한 근거와 합리적 원칙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

가치를 표명한 시대적 배경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조선 사람들의 눈에는 정의가 바로서지 않았다. 먼저 보편적인 가치기준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는 정의롭지 않았다. 조선 사람들 은 1910년대 무단통치의 상황 속에서 현재의 우리가 생각하는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굳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논하지 않더라도 조선 사람들 이 느낀 공포는 사람들이 떠올리는 진리에 부합하지 않았다.

또한 당대 조선 사람들의 가치기준에서 판단했을 때에도 정의롭지 않은 모습들이 보였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기생하여 자기 인생의 활로를 발견하려했던 친일파, 일본인 지주를 등에 업고 조선인 소작인을 착취했던 조선인 마름들의 행위는 당시 사람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게 했다.

한편, 당시의 일반사람들, 민초들은 식민지배의 부당함을 함부로 입밖에 내지 못했다. 정의를 추구하는 일이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낳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초들은 3·1운동을 통해 부당함을 딛고 정의를 이야기했다.

현재적 해석

100년이 지난 현재 정의로움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가치이다. 일제강점기 조선 사람들이 느꼈던 것처럼 오늘 날 한국 사람들도 올바르지 않은 일이 바로서지 않는 경우를 많이 목도했기 때문이다. 정의롭지 않은 일은 사회 곳곳에 많이 발생한다. 중요한 점은 현재의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일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2017년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온 일도 '정의롭지 못하고, 나라답지 못한 나라의 모습'에 대한 항변의 결과였다.

평화국가

가치 및 이념

3·1 운동의 참여한 선열들은 독립을 위해 상대를 증오하는 수준을 넘어 다른 국가와 민족과 호혜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평화국가를 지향했으며, 당시 선언문에도 △동양평화 △평화독립 △세계평화와 같은 문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가치를 표명한 시대적 배경

근대화를 주도한 일본은 한 때 많은 지식인들에게 동아시아의 모범국가로 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은 '동양평화'라는 명분을 자주 내세웠는데, 이는 일본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인들이 서양 세력에 맞서 평화를 지키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유례없는 폭력적인 식민통치를 펼치는 과정을 지켜본 선열들은 그 구호가 허구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았다. 3·1 운동을 통해 나라를 되찾는 것은 물론 서로 더불어 공존하는 호혜평등한 평화국가를 건설하려고 것이 선열들의 뜻이었다.

현재적 해석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다. 또한 한반도는 한국전쟁(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역사를 겪으며 냉전체제의 비극을 정면으로 마주한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오늘날 동아시아는 중국-일본-러시아-미국 등 초강대국이 마주한 곳으로 전쟁과 평화에 민감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3·1 운동에서 지향한 평화국가라는 가치는 충분히 현재적 의미를 가진다. 이와 함께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볼 때, 남북간 전쟁 위험과 긴장을 해소하면서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mathbf{V}

참고 자료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쉽게 읽는 2·8독립선언서 쉽게 읽는 대한독립선언서 쉽게 읽는 대한여자독립선언서 쉽게 읽는 조선혁명선언 대한민국임시헌장

참고 자료

'3·1독립선언서' 해설

'3·1독립선언서'는 천도교 측의 부탁을 받은 최남선이 작성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고, 종교 지도자들 33명이 민족을 대표해 서명했다. 민족 대표 33명은 천도교 지도자 15명, 기독교 지도자 16명, 불교 지도자 2명이다. 선언서에는 천도교 대표 손병희, 장로교 대표 길선주, 감리교 대표 이필주, 불교 대표 백용성 순으로 먼저 각 종교 대표 이름이 들어갔다. 이후 이름은 '김'이 '권'보다 앞서거나 '량', '류', '리'로 발음하는 등 순서와 표기가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가나다순으로 적었다. 최종적으로 민족 대표 33명이 확정된 날은 1919년 2월 27일이다.



'3·1독립선언서'는 그날 저녁 무렵부터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인쇄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만일천 장에서 삼만오천 장쯤 인쇄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28일에 천도교, 기독교, 불교 지도자들이 전국에 배포했다. 3월 1일, 7개 도시에서 열린 만세 시위에서는 모두 3·1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그날 이후 3·1독립선언서는 인쇄 기계가 있는 학교나 교회에서 수백 장, 수천 장씩 찍어 냈고 전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열리던 만세 시위 현장에 뿌려 졌다. '3·1독립선언서'에는 자유와 평등, 인권 등 근대적인 사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조선의 독립이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인류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제주의 시각도 녹아 있다. 특히 비폭력을 내세우면서도 "마지막 한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독립을 향한 민족의 뜻을 외치자는 결연함이 강조되어 있다.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 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

^{*} 조선: 우리나라

^{**} 조선인: 우리나라 사람

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 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 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

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

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 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 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 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 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 도의: 인도와 정의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 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1919년 3월 1일)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 존영: 고귀하고 세상에 빛남

참고 자료

'2·8독립선언서' 해설

발표될 때의 제목은 그냥 '선언서'였지만 다른 독립선언서와 구별하려고 발표된 날짜를 붙여 '2·8독립선언서'라고 부른다. 이 독립선언서는 일본 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일본 도쿄에 유학하고 있던 한국인 학생들은 1919년 2월 8일 조선기독교청년회[YMCA]회관에서 유학생 총회를 가장한 조선청년독립단대회를 개최하여 이광수가 작성하고 유학생 11명이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백관수가 낭독했다.

대회를 마친 다음에는 시가 행진을 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이광수를 제외한 서명자 전원은 출판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했다. 한편 이광수는 선언서를 다 작성하고 1월 말 상하이로 건너가 영문으로 된 선언서를 각국으로 발송했다. 2·8독립선언서는 국내에도 들어와 3·1독립선언서 작성에 참고가 되었으며, 민족 대표의 3·1운동 준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선언서에는 일본의 침략과 국권 찬탈을 '사기와 폭력'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당한 [독립] 요구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항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쉽게 읽는 2·8독립선언서

조선청년독립단^{朝鮮靑年獨立團} 모든 단원은 우리 이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룰 것을 기약하고 선언하노라.

사천삼백 년의 긴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실로 세계에서 매우 오래된 문명 민족의 하나이다. 비록 어떤 때는 중국 황실에 새해 인사를 바친 적도 있었으나 이는 조선 황실과 중국 황실 사이에 맺은 형식적 외교 관계에 불과했고조선은 항상 우리 민족의 조선이요, 한 번도 통일 국가를 잃고 이민족의 실질적 지배를 받은 일이 없도다.

일본은 조선과 일본이 입술과 이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자각한다고 하여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로 한국의 독립을 앞장서서 승인했다. 또한, 영국·미국·프랑스·독일·러시아 등 여러 나라도 독립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전하기를 약속했도다. 한국은 그 은혜와 의로움에 감격해 각오를 단단히 하여 여러 개혁과 국력의 충실을 도모했도다.

당시 러시아의 세력이 남하하여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안녕을 위협할 때 일본은 한국과 공수^{攻守} 동맹을 체결하여 러일전쟁을 벌이니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독립 보전은 실로 이 동맹의 근본 취지였다. 한국은 더욱 그 호의를 받아

들여 육해군의 작전을 돕지는 못했으나 주권의 위엄까지 희생하며 가능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했도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강화 회의가 열렸을 때 일본은 동맹국인 한국이 참가할 수 없게 했고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의 대표자가 임의로 일본이 한국에 행사하는 종주권^{*}을 결정했다. 일본은 우월한 병력을 믿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한다는 과거 약속을위반하고 당시 유약한 한국 황제와 그 정부를 위협하고 속였으니 '국력의 충실함이 족히 독립을 얻을 만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이 나라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어 한국이 세계 나라들과 직접 교섭할길을 막았다.

이로써 '상당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았다. 다시 '징병령 실시까지'라는 조건으로 군대를 해산하고 민간의 무기를 압수하고 일 본 군대와 헌병 경찰을 각지에 두루 배치하였고 심지어 황궁의 경비까지 일본 경찰을 고용해 한국이 전혀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후에 다소 명석하다 일컫던 한국 황제를 몰아내고, 황태자를 받들어 모시고, 일본의 앞잡이들로 이른바 합병^{**} 내각을 조직하여 비밀과 무력 속에서 합병 조약을 체결하니 이

^{*} 종주권(宗主權): 한 나라가 국내법의 범위 안에서 다른 나라의 내정이나 외교를 지배하는 특수한 권력.

^{** &#}x27;합병', 또는 '합방'은 두 나라를 합친다는 뜻으로 일본의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아 '강제 병합', 또는 '병탄(倂吞)'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풀이본에서는 원문 표기를 그대로 살려 실었다.

에 우리 민족은 건국 이래 반만년 만에 한국을 지도하고 원조하노라 하는 우방의 군국적 야심에 희생되었도다.

실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행위는 사기와 폭력에서 나온 것이니 실상 이와 같이 엄청난 사기의 성공은 세계 흥망사에 특별히 기록할 인류의 크나큰 치욕 이라 하노라.

보호 조약을 체결할 때 황제와 몇몇 역적 아닌 대신들은 모든 수단을 다해 반항했고 발표 후에도 온 국민은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온갖 반항을 다했다. 사 법권과 경찰권을 뺏고 군대를 해산했을 때에도 그랬고, 합병을 당하고 나서는 손안에 작은 쇠붙이조차 없는데도 가능한 온갖 반항 운동을 다하다가 정밀하고 예리한 일본 무기에 희생된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 후 십 년간 독립운동을 하며 희생된 사람이 수십만이며 참혹한 헌병정치 아래 손발이 묶이고 입과 혀로 말을 못 하는 억압을 받으면서도 일찍이 독립운동이 끊어진 적이 없으니이를 보더라도 일한합병*이 조선 민족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는지라.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은 일본 군국주의적 야심의 사기와 폭력 아래 우리 민족의 의사에 어긋나는 운명을 겪었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조하는 이때에 올바른 정의를세계에 청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으며 또 세계 개조를 주도하는 미국과 영국은 보호와 합병을 앞장서서 승인했으니 지금 과거의 죄악을 속죄할 의무가 있다

^{*} 원문 표기를 그대로 따름.

하노라.

또 합병 이래 일본의 조선 통치 정책을 보건대 합병 때의 선언과 반대로 우리 민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고대의 정복자가 피정복자에게 대하는 비인도적 정책을 응용하여 우리 민족에게는 크고 작은 정치 권력, 집회 결사의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며 심지어 종교 신앙의 자유, 기업의자유까지도 상당히 구속하고 행정, 사법,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조선 민족의 인권을 침해했다. 공공 이익에서 우리 민족과 일본인 간에 우열의 차별을 두어일본인에 비해 조선 민족에게 열등한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영원히 일본인의 노예가 되게 하고 역사를 개조하여 우리 민족의 신성한 역사적, 민족적 전통과 위엄을 파괴하고 능욕하고 모욕했다. 소수의 관리를 빼고는 정부의여러 기관과 교통, 통신, 군사 경비 관련 기관은 전부 또는 대부분 일본인만고용하여 우리 민족이 국가 생활의 지식과 경험을 얻을 기회를 영원히 빼앗으니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은 무력 압제와 부정하고 불평등한 정치 아래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뿐 아니라 원래 인구가 많은 조선에 무제한으로 일본인을 옮겨 오게 해서 토박이인 우리 민족은 해외로 떠돌게 되었으며 국가의 여러 기관은 물론이요, 여러 사설 기관에까지 일본인을 고용하여 조선인이 직업을 잃게 했다. 또한 조 선인의 부^富를 일본으로 유출하고 상공업에서는 일본인에게 특수한 편익을 주 어 조선인이 산업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빼앗았다. 이와 같이 어느 방면으로 보 아도 우리 민족과 일본인은 이해관계가 부딪치며, 부딪치면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민족이니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되찾고자 독립을 주장하노라.

마지막으로, 동양 평화를 염원하는 처지에서 보건대 위협자이던 러시아는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와 박애를 기초로 한 새 국가를 건설 하려고 하는 중이며 중화민국 역시 그러하다. 아울러 점차 국제연맹이 실현되면 다시 군국주의적 침략을 감행할 강국이 없을 것이라. 그러므로 한국을 합병한 가장 큰 이유가 이미 소멸되었다. 따라서 조선 민족이 무수한 혁명과 반란을 일으킨다면 일본에 합병된 한국은 오히려 동양 평화를 어지럽힐 화근이될지라.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하지만 만일 이로써 성공치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온갖 자유행동을 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향한 뜨거운 피를 흩뿌릴지니 어찌 동양 평화의 화근 이 아니리오. 우리 민족은 한 명의 군사도 없도다. 우리 민족은 병력으로 일본 에 저항할 실력도 없도다. 그러나 일본이 만일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 응한다면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항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포하리라.

우리 민족은 수준 높은 문화를 오래도록 누리고 반만년 동안 국가 생활을 경험해 온 민족이다. 비록 여러 해 전제 정치의 해악과 불행이 우리 민족을 오늘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위에 선진국의

모범을 따라 새 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건국*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해 왔기에 우리 민족이 반드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할 것이다.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민족 자결의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되찾으 려는 자유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립을 반드시 이룰 것을 선언하노라.

^{*} 건국: 고조선의 건국을 의미함.

조선청년독립단 대표자

최팔용 이종근 김도연 송계백 이광수 최근우 김철수 김상덕 백관수 서 춘 윤창석

결의문

- 1. 우리 단^團은 일한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또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힐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 2. 우리 단은 일본 의회와 정부에 조선민족대회를 소집하여 이 대회의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단할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구함.
- 3. 우리 단은 만국강화회의의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하기를 청구함.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본에 머무는 각국 대사와 공사에게 우리 단의 주장과 대의를 각기 정부에 전달하기를 의뢰하고 동시에 위원 두 명을 만국강화회의에 파견함. 이상 위원은 이미 파견한 우리 민족의 위원과 행동을 같이함.
- 4. 앞항의 요구가 실패할 때는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항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포함. 이로써 일어나는 참화는 우리 민족이 책임지지 않음.

참고 자료

'대한독립선언서' 해설

'대한독립선언서'에는 작성 날짜가 1919년 2월로 적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2월을 양력으로 보아 3·1운동 이전에 발표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음력으로 보아 3·1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 가던 1919년 3월 11일 발표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중국의 지린에서 '대한독립의군부'의 주도 아래 김교헌·김규식·김동삼·김약연·김좌진·신채호·이승만·박은식·안창호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저명한 독립운동가 39명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1917년 7월에 발표된 '대동단결선언'과 함께 조소 앙이 초안을 잡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석판으로 사천 장을 인쇄하여 만주 일대와 연해주·유럽 · 미국·베이징·상하이·일본 및 국내로 발송했다고 한다.

"섬^(일본)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한국)는 반도로 돌아오고, 대륙^(중국)은 대륙으로 돌아갈지어다. 각기 원상을 회복함은 아시아에 다행인 동시에 너희^(일본)에게 도다행"이라는 유명한 구절을 담고 있으며, 특히 독립을 실현할 방법으로 '육탄혈

전(肉彈血戰: 몸이 총탄이되어목숨을 아끼지않고싸움)'이라는 폭력적인 수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비폭력'을 원칙으로 삼은 3·1독립선 언서와 차이가 있다.



쉽게 읽는 대한독립선언서

우리 대한 동족 남매와 온 세계 우방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신성한 평등복리^{平等福利}를 우리 자손 대대로 전하고자 여기 이민족^{*} 압제의 학대와 억압을 벗어 버리고 대한 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우리 대한은 예부터 우리 대한의 한韓이지, 이민족의 한이 아니다. 반만년역사의 정치와 외교는 한국 왕과 황제의 고유 권한이요, 백만 방리**의 높은산과 수려한 물은 한국 남녀의 공유 재산이다. 우리 민족은 기골과 문화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뛰어나므로 능히 자국을 옹호하며 만방을 화합하여 세계에함께 전진할 하늘 백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털끝만 한 권한이라도 이민족에게 양보할 의무가 없고, 우리 강토의 한 뼘이라도 이민족이 점유할 권한이없으며, 한 사람의 한인韓시이라도 이민족이 간섭할 조건이 없으니, 우리 한은 완전한 한인의 한이다.

슬프도다, 일본이 무력으로 지은 재앙이여! 임진왜란 이래로 반도에 쌓아

^{*} 이민족(異民族): 일본을 말함.

^{**} 방리(方里): 방리는 가로세로 1리가 되는 면적이다. 1리는 392,727m다.

놓은 악은 만세에 숨기지 못할지며, 갑오년(1894년) 이후 대륙에 지은 죄는 세계 만국이 용납지 못하리라. 저들은 전쟁을 즐기는 악습으로 자국 보호니 자위^{自衛}니 구실을 만들더니, 마침내 하늘의 뜻에 거역하고 사람의 도리에 거스르는 보호 합병^{*}을 강제했다. 맹세를 어기는 저들의 패역한 버릇은 영토니 문호 개방이니 기회니 하는 구실로 거짓을 일삼다가 결국 불의하고 무법한 밀약을 강제로 맺었다. 저들의 요망한 정책은 감히 종교를 핍박하여 신앙의 전파를 방해했고, 교육을 제한하여 문화의 유통을 막았고, 인권을 박탈하며 경제를 농락하며 군경^{軍警}의 무단 통치와 이민^{移民}의 술수로 한민족을 멸하고 일본인을 이식하려는 간악한 흥계를 실행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우리 한민족을 없애려 했던 계략이 얼마인가. 지난 십 년 간 무력으로지은 재앙이 일으킨 난리가 지금 극에 이르므로 하늘이 저들의 좋지 않은 행실을 꺼리시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 이에 우리들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 사람의 도리에 응하여 대한 독립을 선포하는 동시에 저들이 합방한 죄악을 널리 알리고 잘못을 밝히니,

^{* &#}x27;합병', 또는 '합방'은 두 나라를 합친다는 뜻으로 일본의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아 '강제 병합', 또는 '병탄(倂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풀이본에서는 원문 표기를 그대로 살려 실었다.

- 1. 일본의 합방 동기는 저들의 이른바 '범일본주의'를 아시아에서 멋대로 실행함이니, 이는 동양의 적이요,
- 2. 일본의 합방 수단은 사기 협박과 불법 무도와 무력 폭행이 극에 달했으 니, 이는 국제 법규의 악마이며,
- 3. 일본의 합방 결과는 군경의 만행과 경제의 압박으로 종족을 없애고, 종교를 억압하고, 교육을 제한하여 세계 문화를 저지하고 가로막았으니, 이는 인류의 적이라.

그러므로 하늘의 뜻과 사람의 도리와 정의와 법리에 비추어 세계 만국에 입증함으로써 합방 무효를 선포하고, 저들의 죄악을 응징하며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노라.

슬프도다! 일본이 무력으로 지은 재앙이여! 작게 징계하고 크게 타이름이 너희의 복이니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고, 대륙은 대륙 으로 돌아갈지어다. 각기 원상을 회복함은 아시아에 다행인 동시에 너희에게 도 다행이거니와, 만일 미련하게도 깨닫지 못하면 화근이 모두 너희에게 있으 니, 옛것을 돌이켜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의 이로움을 거듭 타이르노라.

보라! 인민에게 악마와 도적이었던 압제와 강압 정권의 잔불은 이미 꺼졌고, 인류에 부여된 평등과 평화는 명명백백하여, 공의公義의 심판과 자유의 보편은 실로 오랜 세월의 모질고 사나운 운명을 모조리 씻어 내려는 하늘의 뜻을 실현 함이요, 힘없는 나라들과 스러져 가는 민족들을 구제하는 대지의 복음이다.

장하도다, 시대의 정의여! 이때를 만난 우리들이 함께 나아가 무도한 강압 정권의 속박을 벗어 버리고 광명한 평화 독립을 회복함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널리 알리며 인심에 따르고자 함이며, 지구에 발을 붙인 권리로서 세계를 개조하여 대동* 건설을 함께 돕는 까닭이다. 우리 여기 이천만 대중의 뜨거운 마음을 대표하여, 감히 거룩한 신께 분명히 아뢰고 세계만방에 고하노라. 우리독립은 하늘과 사람이 모두 함께 응하는 순수한 동기로써 민족 자주와 보전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이요, 결코 눈앞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우연히 생긴충동이 아니다. 또한 은혜와 원한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비문명적인 보복 수단에 만족함이 아니라, 실로 항구적이고도 일관된 국민의 지극한 정성이 격렬히일어나 저 이민족이 깨닫고 스스로 새로워지게 함이며, 우리의 결실은 야비한 정치 계략을 초월하여 진정한 도의를 실현함이다.

아, 우리 대중이여! 공의로 독립한 사람은 공의로써 나아갈지라. 모든 방법으로 군국 압제를 제거하여 민족 평등을 세계에 널리 베풀지니 이는 우리 독립의 첫째가는 뜻이다. 무력으로 병합함을 근절하여 천하를 평등하고 균등하게 하는 도리^{**}로 진행할지니 이는 우리 독립의 본령이다. 밀약과 사사로운 전

[&]quot;대동(大同): 온 세상이 평화롭게 함께 번영함.

^{**} 원문에는 '평균천하의 공도(平均天下의 公道)'라고 표현되어 있다.

쟁을 엄금하고 대동 평화를 널리 알릴지니 이는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야 하는 사명이다.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부를 모든 동포에게 베풀고 남녀 차별과 빈부 격차를 없애며, 어진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고루 지혜로워지고,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이 고루 제 수명을 누릴 수 있도록 사해 인류를 균등하게 헤아릴 것이니, 이는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 기치^{*}이다. 나아가 국제 사회의 불의를 감독하고 우주의 진선미^{真善美}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이니 이는 우리한민족이 때를 만나 부활하여 이루려는 궁극적 의의이니라.

아,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 이천만 우리 형제자매여! 단군 대황조^{大皇祖}께서 상제^{上帝}의 도움을 받으시어 우리의 기회와 운수를 명하시며,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돕는다.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이로써 하늘을 거스르는 악마와 나라를 훔쳐 간 도적을 한 번에 무찌르라. 이로써 사천 년 조상의 찬란한빛을 드높일 것이며, 이로써 이천만 백성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니, 일어나라독립군아! 삼가 나아가라 독립군아! 천지간에 얽혀 한 번 죽음은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니, 개·돼지와 같은 일생을 누가 구차하게 꾀하리오. 살신성인하면 이천만 동포와 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니 내 한 몸을 어찌 아낄 것이며, 집안이 기울어도 나라를 되찾으면 삼천리 옥토가 내 집안의 소유이니 어찌 내한 가족 희생하지 않으랴!

^{*} 기치: 깃발이라는 의미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상이나 강령을 상징함.

아, 우리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 이천만 형제자매여! 국민의 본분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할 것이며, 동양 평화를 보장하고 인류 평등을 실현하려는 자립임을 명심할 것이며, 하늘의 명령을 크게 받들어 온갖 사악한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건국임을 확신하여,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단군 기원 4252년^(1919년) 2월 일

가나다순^{**}

김교헌 김규식 김동삼 김약연 김좌진 김학만 정재관 여 준 유동열 이 광 이대위 이동녕 이동휘 조용은 이범윤 이봉우 이상룡 이세영 이승만 이시영 이종탁 박용만 이 탁 문창범 박성태 박은식 박찬익 손일민 ᄉᆡ 정 신채호 안정근 안창호 임 방 윤세복 조 욱 한 흥 최병학 허 혘 황상규

^{*} 육탄혈전(內彈血戰): 몸이 총탄이 되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움.

^{** &#}x27;가나다순'은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한자 발음 순서를 말한다. 다만 정재관과 조용은은 표기 순서에서 벗어나 있는데, 여기서는 선언서 원본의 표기 순서를 따랐다.

참고 자료

'대한독립여자선언서' 해설

'대한독립여자선언서'에도 작성 날짜가 1919년 2월로 적혀 있지만, 중국 지린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작성 시점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양력 2월로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음력으로 보아 1919년 3월 무렵대한독립선언서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선언서는 여성들이 작성한, 여성들의 독립선언서이다. 이 선언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이후 1919년 9월 중국 지린 부근의 훈춘^{琿春}에서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선언서는 1,290자의 순 한글로 작성되었으며 김인종·김숙경·김옥경·고순경· 김숙원·최영자·박봉희·이정숙 등 대표자 8명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당시 일본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1919년 4월 8일 연해주에서 선언서 1천여 장을 보내 간도 지 역에 배포했으며, 국내와 도쿄 등지에도 보낸 흔적이 있다고 한다.

남자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부르는데, 비록 아는 것이 적고 몸이 약하지만

여자들도 다 같은 국민이고 양심을 가졌기에 "의리의 갑옷투구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열성의 비수를 잡고 진격의 신발을 신고 한마음으로"일어서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मार्थ के प्राप्त के प	
		外形人材の可見切の切けるなる いっ
		正明也日本正型を取り也其食いり 等於
And the control of th	日 大	古五次次明書のける中での祖外以下
	「中心れていている。」ののようでは、 をはれている。これでは、またのでは、またのでは、 をはれている。これでは、またのでは、またのでは、 ので、これでは、またのでは、また	のまの人文内ますから かかけまりとなる
And define when the principal to the part of the part	明年前 医非可管耳管结肠切迹 医外间性腹腔	· · · · · · · · · · · · · · · · · · ·
	· 一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	こてのはは日本のからののかければする
The state of the s	田田丁八十四日 日日 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	· 并给意思 ながけれるり 中の町 日本の
	the same of the sa	大小され 少国ないののででののませる
The first in this control was the control of the co	一日の中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の日	「神のは、中国のは、中国のは、中国のは、中国というは、日本のは、中国のは、中国のは、中国のは、中国のは、中国のは、中国のは、中国のは、中国
	古の大の日本の本の本の本の大田田のの日の日の大	大大大大大村 中華以本本日日日本中十十十日
	· · · · · · · · · · · · · · · · · · ·	大田本町大田中町中田町大田町大田町大田町町山丁
The control of the co	一日本の日本の日本中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	日本のの日本の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日本の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
	17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	丁田中の日本丁田田田田田田田の日日日日日
where the property of the prop	立然日外の日の大外間可以及の日本の東京の大小社	での現場の月間ではないないなとなるとある。 ではなればなられてものはないのできでだり
All the color of t	二十五日 七日日日日本京北京日日日日の日本日	二丁八五十五丁八丁丁丁 日本日の日下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十
	可上の方方を小也なるの用べれ苦りを上也の	外者原者以其間是因此因其可以此及可手
The control of the co	のは、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	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本の日
And the control of th	の 報告の天後からの方面の名をおりずれ出れなれるの人	大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
A de la cale de l'angle de de l'angle de l'angle de la company de la cale de	而以此有往後衙門司養各方母引了人門三具者	官は我性性なかりのけるを見るないとをお
entre growing with the first section of the first s	此利於以至一即五時間以及時期以五起以外仍日日日世	これの大は日本日本の大大大大田の大田の日の日の
ति क्षेत्र है। स्वार्थ में स्वार्थ के स्वार्थ कि स्वार्थ के स्वार्थ कि स्वार्थ के स्वार्थ	日の河南田大田田田大田田田大田大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田	大江の日本の日の日本日本日本日本日の日の日の日本日日日の日本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
· · · · · · · · · · · · · · · · · · ·	佐上元付の代刊等の京都京都の中は日本京山町香寺	日本のは日本とは、日本のでは、中央の大学のです
不可靠于外不到可能是不同性都可以外对你的过去时的人的时也的程才也会人名达杜司的	可以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中国	九人其事中でかける 別田では 中心 七上日町田寺
	大学ないのではないないないないないないないないない	食事工で食すけるのけれるまれて早日はけ
いからうりゅうなせです		中央をサールかせです

쉽게 읽는 대한여자독립선언서

슬프고 억울하다. 우리 대한 동포시여. 우리나라는 반만년 문명 역사와 이천만 신성 민족으로 삼천리 강토를 족히 누릴 만하거늘, 침략적 야심으로 세계의 공공 법리를 무시하는 저 일본이 야만적 추세로 조국의 흥망 이해는 안중에 없는 역적들과 협동하여 형식에 불과한 합방을 강요했다. 또한 갖가지 악독한 정치 아래 우리 이천만 형제자매가 노예가 되고 희생되어 오랜 세월 동안 씻지 못할 수치와 모욕을 받고 모진 목숨이 죽지 못해 스스로 멸망할 함정에 갇혀서 하루가 일 년 같은 지루한 세월이 십여 년을 지났으니, 그동안 무한한고통은 다 말할 것 없이 우리 동포의 마음속에 품은 비수로 징계해야 한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했거든, 하물며 수천만 생명이 억울해하고 불평하는 하소연을 지극히 공평무사하신 상제께서 통촉하심이 없으리오. 고금에 없는 세계 대전의 끝에 민본주의로 만국이 평화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오늘에 이르러 감사하신 남자 사회 곳곳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 만세 소리에 엄동설한의 반도 강산이 봄바람을 만나 만물이 소생할 시기에 이르렀으니 아무쪼록 용기 위에 용기를 더하고 열성에 열성을 더하여 그 결실을 거두심을 피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이다.

우리도 비록 규중에서 생활하며 지식이 적고 신체가 연약한 아녀자의 무리

이나 다 같은 국민이요, 양심은 한가지다. 용기가 월등하고 지식이 높은 영웅 도사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마친 사람이 허다하건만,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아녀자라도 정성이 극도에 달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 는 것은 소소한 하늘의 이치이다.

우리 여자 사회에서도 동서를 막론하고 후대에 모범될 만한 숙녀현원^{*}이 허다하건만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본받을 선생을 들어 말하자면, 서양의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사리'라는 부인을 들 수 있다. 부인은 농촌 태생으로 아들여덟을 낳아 국가에 바쳤더니 전장에 나가 승리하기는 했으나 불행히 여덟 아들이 다 전사했다. 부인은 그 참혹한 소식을 듣고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며 말하길 "스파르타야, 스파르타야. 내 너를 위하여 여덟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다더라.

'이탈리아'의 '메리야'**라는 부인은 사창가 출신으로 이탈리아가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있음에 분개해 극복 방안을 연구하고 청년 사상을 고취하여 결코 굽히지 않는 투지와 신출귀몰하는 수단으로 마침내 독립 전쟁을 지시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열렬한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감은 눈을 다시 뜨고 "여러분, 국가! 국가!"라는 비장한 유언을 남겼다. 이에 전 군대

^{*} 숙녀현원(淑女賢媛): 교양 있고 지혜로운 여성.

^{**} 메리야(Anna Maria Ribeiro da Silva, 1821-1849)는 이탈리아 해방전쟁에 참여하다 26세의 나이에 전사했다. 이탈리아 건국 영웅 가리발디(Garibaldi Guiseppe, 1807-1882)가 남편이다.

가 일시에 격렬히 피가 끓어올라 맹세했는데, 이탈리아가 그날로 독립되었다더라.

임진왜란 때 진주의 논개, 평양의 화월이라는 여인 또한 화류계 출신으로 그 힘이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던 적장 청정과 소섭을 죽였으므로 국가를 다시 붙든 공이 두 분 선생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러한 급한 때를 당해 비겁하고 나약한 습관을 버리고 용감한 정신으로 분발하여 이러한 여러 선생을 본받아 의리의 갑옷투구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열성의 비수를 잡고 진격의 신발을 신고 한마음으로 일어나면, 지극히자비하신 하느님이 내려다보시고 우리나라 충혼열백^{**}이 지하에서 도우시고세계 만국의 여론이 일 것이니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 없으며 두려할 것도 없도다. 살아서 독립 깃발 아래 활발한 새 국민이 되어 보고 죽어서 구천지하^{***}에 이러한 여러 선생을 좇아 수고함 없이 즐겁게 모시는 것이 우리의 제일 의무가 아닌가.

간장****에서 솟는 눈물과 가슴 깊이 우러나는 붉은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 &#}x27;논개'와 '화월'(평양기생 '계월향'의 어릴 적 이름)은 임진왜란 당시의 비사를 엮은 "임진록"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기생으로, 자신을 희생해 일본 장수를 죽인 인물이다. 여기서 청정은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소섭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혹은 고니시 히(小西飛,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 장수)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 충혼열백(忠魂烈魄): 애국 열사들의 혼백.

^{***} 구천지하(九天地下): 죽은 사람의 혼이 들어가 산다는 깊은 땅속.

^{****} 간장(肝腸): 간과 위장.

대한 동포에게 엎드려 고하오니 동포, 동포여! 때는 두 번 이르지 않고 일은 지나면 못 하나니 속히 분발할지어다! 동포, 동포시여! 대한 독립 만만세.

[단군] 기원 4252년(1919년) 2월 일

김인종 김숙경 김옥경 고순경 김숙원 최영자 박봉희 이정숙 등

참고 자료

'조선혁명선언' 해설

'의열단'이름으로 발표되어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한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 중국 지린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가 13명이 조직한 비밀 독립운동 단체였는데, 일본의 탄압에 대항하려면 더욱 과감하고 급진적인 독립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암살·파괴·폭동 등 폭력을 독립운동의 주요한 방법으로 채택했다.

이후 의열단은 암살과 파괴의 대상으로 선정한 관청이나 인물을 공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폭력적인 방법이 비판을 받자 의열단이 추구하는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법을 정립하려고 1922년 12월 신채호에게 선언문 작성을 의뢰했다. 온건하고 외교적 방법에 치중하는 독립운동 노선에 반대하여 임시정부와 결별한신채호는 한달 동안심혈을 기울여 선언문을 작성하여 1923년 1월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선언문은 3·1운동 이후 제기된 자치론과 준비론, 외교론을 비판하고 나라를 빼 앗은 일본을 폭력을 동원해 몰아내자는 '민중 직접 혁명론'을 주장했다. 강력한 민족주의적 이념과 함께 혁명에 사용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무정부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



쉽게 읽는 조선혁명선언

1

강도 일본이 우리 국호를 없애고, 우리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다 박탈했다. 경제의 생명인 산과 숲, 내와 못, 철도, 광산, 어장·····에서부터 소규모 공업의 원료까지 다 빼앗아, 모든 생산 기능을 칼로베고 도끼로 끊었다. 토지세, 가옥세, 인구세, 가축세, 백일세^{*}, 지방세, 주초세^{**}, 비료세, 종자세, 영업세, 청결세, 소득세 등 기타 각종 잡세를 날로 늘려서, 피를 있는 대로 다 빨아 간다. 웬만한 상업가들은 일본 상품을 조선인에게 매개하는 중개인이 되어 자본 집중의 원칙 아래에서 차차 멸망할 뿐이요, 대다수 인민, 곧 일반 농민들은 일 년 내내 피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 거둔 것을자기 한 몸과 처자식의 입에 풀칠할 거리도 남기지 못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일본 강도에게 갖다 바쳐, 영원히 일본의 살을 찌워 주는 소와 말이 될 뿐이다. 끝내는 그 소와 말 같은 생활도 못 하게 되니 일본인 이주민이 우리 땅에

^{*} 백일세: 상인에게 매출액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한 시장세를 가리킴.

^{**} 주초세: 술과 담배에 매기는 세금.

들어오는 숫자가 해마다 높은 비율로 빠르게 늘어서, '딸깍발이' 등쌀에 우리 민족은 한 뼘 발 디딜 땅이 없어 산으로 물로, 서간도로 북간도로, 시베리아의 황야로 내몰려 가서 굶주린 귀신에서 떠돌아다니는 귀신으로 될 뿐이다.

강도 일본이 헌병 정치, 경찰 정치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우리 민족이 한 발짝 움직이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고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전혀 없어, 고통과 분노와 원한이 있으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슴이나 만질 뿐이요, 행복과 자유세계에는 눈뜬장님이 된다. 자녀가 태어나면, '일본어가 국어다, 일본 문자가 국문이다.'라고 하는 노예 양성소 - 학교로 보내고, 조선 사람으로서 어쩌다 조선사를 읽게 되면, '단군은 소잔명존**의 형제다.', '삼한 시대한강 이남은 일본이 다스리던 땅이다.'라고 일본 놈들이 거짓말로 적어 놓은 것을 그대로 읽게 되며, 신문이나 잡지를 보게 되면 강도 정치를 찬미하는 반쯤 일본화한 노예 같은 글뿐이다. 똑똑한 인물이 태어나면, 환경의 압박을 받아 세상을 비관하고 절망하는 타락자가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음모 사건'이라는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주리를 틀고 목에 칼을 씌우고 단근질***, 채찍질, 전기질****, 바늘로 손톱 밑과 발톱 밑을 쑤시는, 팔다리를 달아매는, 콧구멍에 물을 붓는, 생식기에 심지를 박는 모든 악형, 곧 야만적 전제 정치를 하는

^{*} 딸깍발이: 왜나막신(게다)을 신는 일본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소잔명존(素殘鳴尊, 스사노오노 미코토): 일본 신화의 인물.

^{***} 단근질: 불에 달군 쇠로 몸을 지지는 고문.

^{****} 전기질: 전기 고문.

나라의 형법 사전에도 없는 갖은 악형을 다 당하고 죽거나, 요행히 살아서 감옥 문을 나온다고 해도 평생 불구의 폐인이 될 뿐이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발명하고 창작하는 본능은 생활이 곤란하여 단절되며 진취적이고 활발한 기상은 형편의 압박 때문에 소멸되어 '찍도 짹도' 못 하게 온갖 방면으로 속박, 채찍질, 구박, 압제를 받아, 바다로 둘러싸인 삼천리가 하나의 큰 감옥이 되어, 우리 민족은 아예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잃을 뿐 아니라 타고난 본능까지 잃고서 노예에서 기계가 되어, 강도의 손아귀에서 부림을 당하는 물건이 되고 말뿐이다.

강도 일본이 우리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여긴다. 을사 이후 의병이 일어났던 13도의 각 지방에서 일본 군대가 행한 폭행도 이루 다 적을 수 없거니와 최근 3·1운동 이후 수원, 선천······ 등의 국내 각지부터 북간도, 서간도, 노령 연해주 곳곳까지 가는 곳마다 주민을 함부로 죽인다, 마을을 불태운다, 재산을 약탈한다, 부녀를 능욕한다, 목을 끊는다, 산 채로 묻는다, 불에 사른다, 또는 몸을 두 동강 세 동강 내어 죽인다, 아동을 모질고 잔인하게 벌준다, 부녀의 생식기를 파괴한다 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참혹한 수단을 써서 공포와 전율로우리 민족을 압박하여 인간 '산송장'을 만들려 하는도다.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일본의 강도 정치, 곧 이민족의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적 수단으로 우리 생존 의 적인 강도 일본을 죽여 없애는 것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2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얻으려 애쓰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은 '동양 평화', '한국 독립 보전' 등을 틀림없이 이루겠다는 굳은 약속*이 먹도 마르기 전에 삼천리 강토가 집어먹힌 역사를 잊었느냐? '조선 인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보호함', '조선 인민의 행복을 증진함' 등을 거듭 밝힌 선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천만 생명이 지옥에 빠지던 실제를 못 보느냐? 3·1운동 이후에 강도 일본이 또 우리의 독립운동을 누그러뜨리려고 송병준, 민원식 등 한두 매국노를 시켜 이따위 미친 주장을 퍼뜨리는 것이니, 이에 부화뇌동하는 사람은 장님이 아니면 어찌 간사한 역적이 아니겠느냐?

설혹, 강도 일본이 과연 관대한 도량이 있어 이런 요구를 기꺼이 허락한다하자. 이른바 내정 독립을 찾고 각종 이권을 찾지 못하면 조선 민족은 모두 굶주린 귀신이 될 뿐 아니냐? 참정권을 얻는다 하자. 자기 나라 무산 계급의 피까지 착취하는 자본주의 강도 나라의 식민지 인민으로서 노예 대의원 몇 명을 선출한들 굶어 죽는 재앙을 어찌 구제하겠느냐? 자치를 얻는다 하자. 그 어떤 식의 자치이든지 간에 일본의 강도적 침략주의의 명패인 '제국'이란 명칭

^{* 1905}년의 '을사조약'을 가리킴.

^{**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을 가리킴.

이 존재하는 이상에는, 거기에 딸린 조선 인민이 어찌 자치라는 구차하고 헛된 이름으로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겠느냐?

설혹, 강도 일본이 갑자기 부처나 보살이 되어 하루아침에 총독부를 철폐하고 각종 이권을 다 우리에게 돌려주며, 내정과 외교를 다 우리의 자유에 맡기고 일본의 군대와 경찰을 한꺼번에 철수하며, 일본인 이주민을 한꺼번에 소환하고 명목상의 종주권만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일 과거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치욕'이라는 말을 아는 인간이라면 일본을 종주국으로높이 받들 수 없다.

일본 강도 정치 아래에서 문화 운동을 부르짖는 사람이 누구냐?

문화는 산업과 문물이 발달하여 쌓인 전체를 일컫는 말이니 경제 약탈의 제도 아래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한 민족은 그 종족을 보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문화를 발전시킬 가망이 있으랴? 쇠퇴하고 망한 유태 민족과 인도 민족도 문화가 있다 하지만, 하나는 돈의 힘으로 조상이 남긴 종교적활동을 계속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예전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니, 어디 모기와 등에같이, 승냥이와 이리같이, 사람의 피를 빨다가 골수까지 깨무는 강도 일본의 입에 물린 조선 같은 데서 문화를 발전시키거나 지킨 전례가 있더냐? 검열, 압수, 모든 압박 중에 몇몇 신문, 잡지를 가지고 '문화 운동'의 목탁이라고 스스로 떠들며, 강도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만한 언론이나 주창하여 이것을 문화 발전의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 그 문화

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불행인가 하노라.

이상의 이유에 근거하여 우리는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사람 (내정 독립, 자치, 참정권 등을 주장하는)이나 강도 정치에 기생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문화 운동자)이나 다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

3

강도 일본을 쫓아내자는 주장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외교론이다. 조선 시대 오백 년 문약 정치^{*}가 '외교'를 나라를 지키는 좋은 계책으로 삼아 오면서 말세에는 그것이 더욱 심해졌다. 갑신^{**} 이래 유신 당, 수구당의 번성과 쇠퇴가 거의 외국의 도움이 있고 없음으로 결정되며, 위정자의 정책은 오직 이 나라를 끌어들여 저 나라를 제압하는 것에 불과했다. 남에게 의뢰하는 그러한 습성이 일반 정치 사회에 전염되어 갑오^{***}, 갑진^{****}두 전쟁에서 일본은 수십만의 생명과 수억만의 재산을 희생하여 청나라와 러시아 두 나라를 물리치고 조선에 강도적 침략주의를 관철하려 하는데, 우리

^{*} 문약 정치: 문(文)을 숭상하고 무(武)를 하찮게 여겨 국력을 약하게 만드는 정치.

^{**} 갑신: 1884년의 갑신정변.

^{***} 갑오: 1894년의 청일전쟁.

^{****} 갑진: 1904년의 러일전쟁.

조선의 '조국을 사랑한다, 민족을 건지려 한다' 하는 이들은 어리석고 욕심 많고 포악한 관리나 역적에게 칼 한 자루, 폭탄 한 개를 던지지 못하고 겨우 청원서나 여러 나라 공관에 던지며 기껏 탄원서나 일본 정부에 보내어 나라가 외롭고 힘이 약하다고 슬피 호소하면서, 국가의 존망과 민족의 사활이 걸린 큰 문제를 외국인 심지어는 적국인이 처리하여 결정해 주기만 기다렸도다. 그래서 '을사조약', '경술합병'*, 곧 '조선'이란 이름이 생긴 뒤 몇 천 년 만에 처음 당하는 치욕에 조선 민족이 분노를 표시한 것이 겨우 하얼빈의 총**, 종현의 칼***, 산림 유생의 의병이 되고 말았도다.

아! 지난 수십 년 역사야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 보면 침 뱉고 욕할 역사일 뿐이며, 어진 사람이 보면 마음 상할 역사일 뿐이다. 그러고도 나라가 망한 이후 해외로 나가는 아무개 아무개 지사들의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외교'가 제1장 제1조가 되며, 국내 인민에게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방법도 거의 천편일률로 '앞으로 미일전쟁, 러일전쟁 등의 기회가 오면' 같은 문장이었다. 최근 3·1운동에서 여러 인사가 '평화회의·국제연맹'을 지나치게 믿고 선전한 것이 도리어 이천만 민중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뜻과 기운을 없애버리는 매개가 되었을 뿐이었도다.

^{* &#}x27;합병', 또는 '합방'은 두 나라를 합친다는 뜻으로 일본의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아 '강제 병합', 또는 '병탄(倂吞)'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풀이본에서는 원문 표기를 그대로 살려 실었다.

^{**} 하얼빈의 총: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오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아 죽인 안중근의 의거.

둘째는 준비론이다. 을사조약 당시 여러 나라 공관에 빗발치듯 보냈던 종 이쪽지로 나라의 주권이 넘어가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정미년^(1907년)의 헤이 그 밀사도 독립을 되찾았다는 복음을 안고 오지 못하매, 이에 차차 외교에 의 심이 들고 전쟁 아니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생겼다. 그러나 군인도 없고 무기 도 없이 무엇으로 전쟁을 하겠느냐? 산림 유생들은 대의명분 앞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따지지 않고 의병을 모집하여 큰 갓에 소매 넓은 도포를 입고 대 장이 되어 지휘하면서, 사냥꾼으로 화승총 부대를 모아 가지고 조선과 일본 의 전투에 나섰다. 그렇지만 신문 쪼가리나 본 사람들, 곧 시대 흐름을 짐작한 다는 사람들은 그리할 용기가 안 난다. 이에 "오늘, 지금, 곧바로 일본과 전쟁 한다는 것은 망발이다. 총도 장만하고 돈도 장만하고 대포도 장만하고 장교나 졸병감까지도 다 장만한 뒤에야 일본과 전쟁한다." 하니, 이것이 이른바 준비 론, 곧 독립 전쟁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외세의 침입이 더할수록 우리의 부족 한 것이 자꾸 느껴져 그 준비론의 범위가 전쟁 바깥에까지 확장되어 교육도 진흥해야겠다. 상공업도 발전시켜야겠다. 기타 무엇 무엇 모두가 준비론의 부 분이 되었다.

경술 이후 여러 지사들이 혹 서간도, 북간도의 삼림을 더듬으며, 혹 시베리아의 찬바람에 배부르며, 혹 남경, 북경으로 돌아다니며, 혹 미주나 하와이로들어가며, 혹 서울이나 시골에 출몰하여 십여 년을 내외 곳곳에서 목이 터질만큼 "준비! 준비!"를 불렀지만, 소득은 몇 개 불완전한 학교와 실력 없는 모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성과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다. 강도 일본이 정치와 경제 두 방면으로 괴롭혀 경제가 날로 곤란하고 생산 기관을 전부 빼앗기고 먹고 입을 방법도 끊어지는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실업을 발전시키며, 교육을 확장하며, 더구나 어디서? 얼마나? 군인을 양성하며, 양성한들 일본 전투력과 비교하여 백분의 일이라도 되게 할수 있느냐? 실로 한바탕 잠꼬대일 뿐이로다.

이상의 이유에 따라 우리는 '외교', '준비' 같은 어리석은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이라는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4

조선 민족이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할 것이며, 강도 일본을 쫓아내자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가 혁명에 종사하려면 어느 방면부터 시작하겠느뇨?

구시대의 혁명으로 말하면, 인민은 국가의 노예가 되고 그 위에 인민을 지배하는 상전 곧 특수 세력이 있어 이른바 혁명이란 특수 세력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자면 '을'이라는 특수 세력으로 '갑'이라는 특수 세력을 교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민은 혁명에 대하여 다

만 갑·을 두 세력, 즉 신·구 두 상전 중 누가 더 어질고 누가 더 포악하며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한가를 보아 어느 편에 설지를 정할 뿐이요, 혁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그리하여 '임금의 목을 베고 백성을 위로한다'가 혁명의 유일한 취지가 되고 '백성들이 도시락 싸 들고 나와서 임금의 군대를 환영했다'가 혁명사에서 유일한 미담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혁명으로 말하면, 민중이 곧 민중 자기를 위해 하는 혁명이기 때문에 '민중혁명', 또는 '직접혁명'이라 부르는 것이다. 민중이 직접 수행하는 혁명이기 때문에 끓어오르고불어나는 열기는 숫자로 강약을 비교할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이며, 성공과실패의 결과는 늘 전쟁학에서 예측하는 궤도에서 벗어난다. 그리하여 돈 없고군대 없는 민중이 백만의 군대와 억만의 돈을 가진 제왕도 타도하며, 외국의도적도 쫓아낸다. 그러므로 우리 혁명의 첫걸음은 민중의 각오를 요구하는 것이니라.

민중이 어떻게 각오하느뇨?

민중은 신인^{神人}이나 성인^{聖人}이나 어떤 영웅호걸이 있어 '민중을 각오'하도록 지도하는 데서 각오하는 것이 아니요, '민중아, 각오하자', '민중이여, 각오하여라' 하는 그런 열렬하게 부르짖는 소리에 각오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민중이, 민중을 위하여, 민중이 향상하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불평, 부자연, 불합리한 것부터 먼저 타파하는 것이 곧 '민중을 각오하게' 하는 유일 한 방법이다. 다시 말하자면 먼저 깨달은 민중이 민중 전체를 위해 혁명의 선 구가 되는 것이 민중이 각오하는 첫 번째 길이니라.

일반 민중이 굶주림, 추위, 피로, 고통, 아내의 호소, 아이의 울음, 납세 독촉, 사채 재촉, 행동의 부자유 등 모든 압박을 받아, 살려니 살 수 없고 죽으려 해도 죽을 바를 모르는 판에, 만일 그 압박의 주요 원인인 강도 정치를 펼친 강도들을 때려죽이고, 강도의 모든 시설을 파괴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며, 모든 민중이 동정의 눈물을 뿌려, 이에 사람마다 '굶어 죽는 것' 말고도오히려 혁명이란 길 하나가 남아 있음을 깨달아, 용기 있는 사람은 의분을 못이겨, 약한 사람은 고통을 못 견뎌, 모두 이 길로 모여들어 계속 나아가며 널리 옮아가서 온 국민이 뭉쳐서 하나가 되는 대혁명이 일어나면 그날이 간사하고 교활하며 잔인하고 포악한 강도 일본이 마침내 쫓겨나는 날이다. 그러므로우리의 민중을 깨우쳐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새 생명을 개척하고자 하면, 군인을 십만 명 키우는 것이 폭탄을 한 번 던지는 것만 못하며, 수억장 신문과 잡지를 찍어 내는 것이 폭동을 한 차례 일으키는 것만 못할지니라.

민중의 폭력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거니와, 이미 일어났으면 마치 낭떠러지에서 굴린 돌과 같아서 목적지에 닿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것이다. 우리 지나온 경과로 말하면 갑신정변은 특수 세력이 특수 세력과 싸우던 궁중의 한때 활극일 뿐이며, 경술 전후의 의병들은 충군애국이라는 대의에 흥분하여 힘차게 일어난 독서 계급의 사상일 따름이다. 안중근, 이재명 등 열사의 폭력적 행동은 뜨겁고 맹렬했지만 그 배후에 민중적 역량이 기초가 되지

못했으며, 3·1운동의 만세 소리에 민중이 일치하는 장한 마음이 잠시 나타났지만 폭력의 중심을 가지지 못했도다. '민중·폭력' 둘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비록 사납고 세찬 소리가 나는 장하고 통쾌한 행동이라도 또한 천둥 번개같이 사그라지는도다.

조선 안에 강도 일본이 만들어 낸 혁명의 원인이 산같이 쌓였다. 언제든지 민중의 폭력 혁명이 시작되어 '독립을 못 하면 살지 않으리라.', '일본을 쫓아내지 못하면 물러서지 않으리라.' 하는 구호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목적을 이루고야 말지니, 이는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간사하고 교활한 정치가의 수단으로도 막지 못하리라.

혁명의 기록은 자연히 처절하고 장엄한 기록이 되리라. 그러나 물러서면 그 뒤에는 캄캄한 함정이요, 나아가면 그 앞에는 광명한 활로이니, 우리 조선 민 족은 그 처절하고 장엄한 기록을 그리면서 나아갈 뿐이니라.

이제 폭력^(암살, 파괴, 폭동)의 목적물을 대략 열거하건대,

- 1. 조선 총독 및 각 관리와 공리
- 2. 일본 천황 및 각 관리와 공리
- 3. 염탐꾼, 매국노
- 4. 적의 모든 시설물

이밖에 각 지방의 신사나 부호가 비록 두드러지게 혁명 운동을 방해한 죄는 없을지라도 만일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운동을 누그러뜨리고 헐뜯는다면 우리는 폭력으로 대응할지니라. 일본인 이주민은 일본 강도 정치의 기계가되어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선봉이 되어 있은즉 또한 우리는 폭력으로쫓아낼지니라.

5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를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지니라. 건설과 파괴는 다만 형식상으로만 구별될 뿐이요, 정신상으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 세력을 파괴하려는 것은,

첫째는 이민족의 통치를 파괴하자 함이다. 왜? '조선'이라는 그 위에 '일본' 이라는 이민족이 전제를 하고 있으니, 이민족의 전제 밑에 있는 조선은 고유의 조선이 아니다. 그러니 고유의 조선을 발견하려고 이민족의 통치를 파괴함이니라.

둘째는 특권 계급을 파괴하자 함이다. 왜? '조선 민중'이라는 그 위에 총독이니 무엇이니 하는 강도단의 특권 계급이 압박하고 있으니, 특권 계급의 압

박 밑에 있는 조선 민중은 자유로운 조선 민중이 아니다. 그러니 자유로운 조선 민중을 찾으려고 특권 계급을 타파함이니라.

셋째는 경제적 약탈 제도를 파괴하자 함이다. 왜? 약탈 제도 밑에 있는 경제는 민중 자기가 생활하고자 조직한 경제가 아니요, 민중을 잡아먹으려는 강도의 살을 찌우고자 조직한 경제이다. 그러니 민중 생활을 발전시키려고 경제적약탈 제도를 파괴함이니라.

넷째는 사회적 불평균을 파괴하자 함이다. 왜? 약한 사람 위에 강한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 위에 높은 사람이 있어, 온갖 불평균이 있는 사회는 서로 약탈하고, 서로 벗겨 먹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원수로 보는 사회가 되어, 처음에는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의 민중을 해치다가 마지막에는 또 소수끼리 서로 해쳐, 민중 전체의 행복이 끝내 숫자상 영이 되고 말 뿐이다. 그러니 민중 전체의 행복을 끌어올리려고 사회적 불평균을 파괴함이니라.

다섯째는 노예적 문화 사상을 파괴하자 함이다. 왜? 전해 내려오는 문화 사상 중에 종교, 윤리, 문학, 미술, 풍속, 습관, 그 어느 것이든 강자가 만들어서 강자를 옹호하던 것이 아니더냐? 강자의 오락에 공급하던 도구가 아니더냐? 일반 민중을 노예로 만들던 마취제가 아니더냐? 소수의 계급이 강자가 되고 다수의 민중은 도리어 약자가 되어 불의의 압제에 반항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노예적 문화 사상의 속박을 받은 까닭이다. 그러니 만일 민중의 문화를 주장하여 속박의 쇠사슬을 끊지 않으면, 일반 민중은 권리에 관한 사상이 희미하

고 자유를 얻어 향상하는 데 흥미가 없어서 노예의 운명 속에서 윤회할 뿐이다. 그러므로 민중 문화를 주장하려고 노예적 문화 사상을 파괴함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고유한 조선의', '자유로운 조선 민중의', '민중적 경제의', '민중적 사회의', '민중적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려고, '이민족 통치의', '약탈제도의', '사회적 불평등의', '노예적 문화 사상의' 현상을 타파함이니라. 그런즉 파괴의 정신이 곧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나아가면 파괴의 '칼'이 되고 들어오면 건설의 '깃발'이 될지니, 파괴할 기백은 없고 건설할 어리석은 생각만 있다면 오백 년을 지나도 혁명은 꿈도 꾸어 보지 못할지니라.

이제 파괴와 건설이 하나요, 둘이 아닌 줄 알진대, 민중의 파괴 앞에는 반드시 민중의 건설이 있는 줄 알진대, 현재 조선 민중은 오직 민중의 폭력으로 새로운 조선 건설에 장애가 되는 강도 일본 세력을 파괴할 뿐인 줄을 알진대, 조선 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편이 되어 네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되는 '외나무다리 위'에 선 줄을 알진대, 우리 이천만 민중은 일치하여폭력과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암살, 파괴, 폭동)으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모든 제도를 개조하여 인간이 인간을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가 사회를 착취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단군 기원] 4256년(1923년) 1월 의열단

대한민국임시헌장*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 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 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 시헌장을 선포하노라.

--- 선서문 ---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 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

^{*}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첫 헌법이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조소앙(趙素昻)이다. 이 헌장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법이 만들어졌다.

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 정 강 ---

-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 5. 절대독립을 서도함.
 -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 이 유함.
-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민국 100년! 선열이 꿈꾼 나라, 우리가 만들 세상

발 행 인 $\,$ 대통령직속 $3\cdot 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 행 일 2019년 5월 14일

디 자 인 고래의노래 디자인 whalesong.co.kr